

‘제주돌담밭’ 국가농업유산지정 기념 학술세미나

『제주밭담』의 문화경관과 인문학적 가치

- 일 시 : 2013년 3월 8(금) 15:00~18:00
- 장 소 :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5층(상공회의소)
- 주최·주관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제주밭담 』의 문화경관과 인문학적 가치

□ 개최 목적

- 제주돌담밭의 국가농업유산 지정과 관련, 경관과 인문학적 가치 대내외 홍보
- 제주밭담의 보전·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세계농업유산으로의 등재 기반 계기 마련

□ 내용

- 제 목 : 「제주밭담」의 문화경관과 인문학적 가치
- 일 시 : 2013. 3. 8(금) 15:00 ~ 18:00
- 장 소 :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5층(상공회의소)
- 주최·주관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효과

- 제주돌문화의 중요성을 대내외 홍보하고,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지정 기반 조성 계기 마련

□ 진행순서

진행 :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구 분	시 간	담 당
개회사 축 사	15:00~15:20	개 회 사 양영오(제주발전연구원장) 축 사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주제발표	15:30~16:30	제1부 : 발제 / 좌장 : 정광중(제주대학교 교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과정과 제주발담 세계중요농 업유산 등재 전략 - 발표 : 강승진(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주경관자원(제주발담) 평가 시스템 구축과 적용 - 발표 : 고성보(제주대학교 교수) 문화경관으로서의 '제주돌담밭'의 가치 - 발표 : 강성기(제주대학교 특별연구원)
휴식	16:30~16:50	Coffee Break
종합토론	16:50~18:00	제2부 : 종합토론 / 좌장 : 정광중(제주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경두(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 강경희(제주대학교 강사) - 강정효(제주대학교 강사) - 강문규(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 김태일(제주대학교 교수) - 좌혜경(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폐회	18:00	사회자

목 차

▣ 주제발표

-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과정과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전략
강 승 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9
- 제주경관자원(제주밭담) 평가 시스템 구축과 적용
고 성 보 (제주대학교 교수) 69
- 문화경관으로서의 ‘제주돌담밭’의 가치
강 성 기 (제주대학교 특별연구원) 93

▣ 토론자료

- 제주 돌문화의 보존 및 활용방안
강 경 희 (제주대학교 강사) 115
- 제주 돌담 밭에 대한 정책은 있는가?
강 정 효 (제주대학교 강사) 126
- 제주 돌담의 문화경관가치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교수) 129
- 고문헌에 나타난 돌에 대한 인식
좌 혜 경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143

개 회 사

들녘의 푸른 잔디와 온갖 만물에 봄의 기운이 왕성하게 피어나는 요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주돌담밭’ 국가농업유산지정을 기념하여 개최
하는 “제주밭담의 문화경관과 인문학적 가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
치도의회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
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 세미
나를 이끌어 주시는 정광중 제주교육대학교 교수님, 발표를 맡아주신 고
성보 제주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연구자님, 토론과 자문을 위해 찾
아주신 농림수산식품부 김경두 사무관님,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21일 제주밭담을 국가농업
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많은 제주기후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 토양과 씨앗의 확산을 방지하는 밭담의 역할과 기능 등 농업
유산으로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마들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밭담의 소유지 구획은 고려시대
고종 1234년 제주판관 김구(金丘)가 밭담을 처음 조성하였다고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토지경계로서의 의미를 넘어 삶의 지혜와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중시한 문화경관으로서 밭담의 생태학적
시스템을 찾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하고, 행정차원에서도 제주밭담의 보전
및 지원 등 정책적인 방안마련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FAO 세계농업유산 (GIAHS)에 등재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을 구성, 세계농업유산 지정 신청 등재를 위한 노력을 하
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주 밭담의 세계적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
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거듭 본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에 흔쾌히 응해주신 여러분들께 고
마운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8일

제주발전연구원장 양 영 오

축 사

생명이 싹트는 봄에 새로운 역사를 꽃 피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오늘 「제주 돌담밭」 국가농업유산 지정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국내를 넘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어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제주의 돌은 제주도의 탄생과 의미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를 이야기 할 때 빠질 수 없는 소재입니다. 특히, 돌을 이용하여 삶의 터전인 밭에 적용한 것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제주만의 문화유산이며 지혜의 산물입니다.

이처럼 울퉁불퉁 시커먼 제주 돌담의 길이는 10만리에 이른다고 하여 “흑룡만리” 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제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밭담”의 경우 22,108km로 제주의 돌담길이 총 36,355km의 61%에 이를 정도로 장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밭담은 과거로부터 씨앗을 심기위해 돌을 일구고 그 씨앗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것일 뿐만 아니라 경계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제주가 척박한 환경과의 싸움이었다면 미래는 이 모든 것이 전통적 문화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유네스코 3관왕에 이어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가 세계농업유산으로의 지정될 경우 제주의 브랜드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관심은 우리가 사용할 것이 아닌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주발전연구원 양영오 원장님과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3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 희 현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과정과 제주발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전략

강 승 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13.3.8.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과정과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전략

강승진 연구위원(제주발전연구원)

INDEX

■ 문제의 제기

■ 국가농어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개념 및 현황

■ 국가농어업유산 지정과 주요 내용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내용과 주요 과제

■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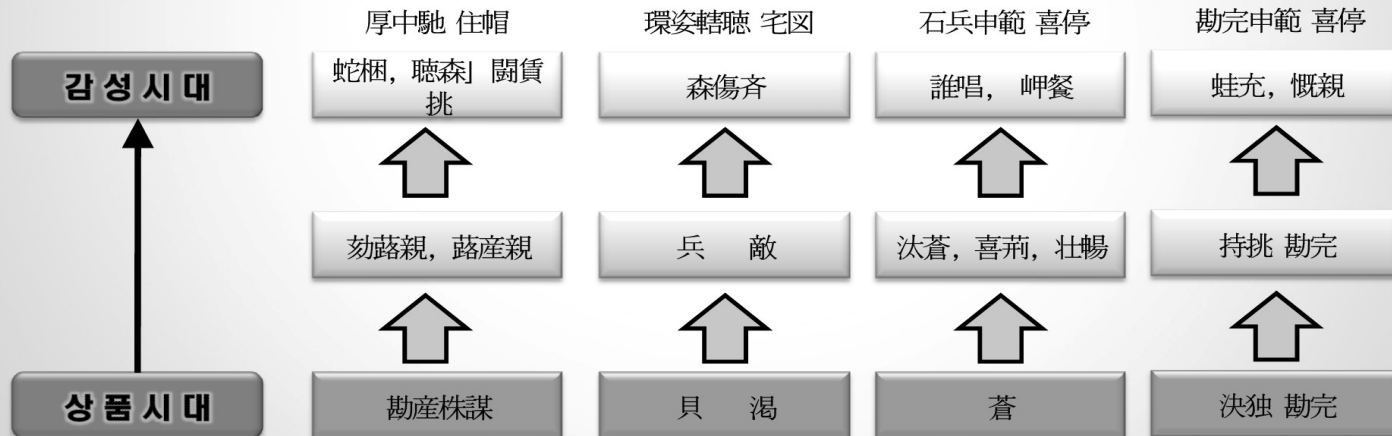
■ 문제의 제기

- WTO/FTA 확대 등 세계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위해 농업유산가치 제도 도입 필요 인식

• 방안의 하나로 소비자를 욕구를 감동시키는 감성농업이 요구됨

•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유한 지역자원 활용

• 제주지역 고유자원인 발담을 농업에 융복합화를 통해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고 감성을 주는 창의농업인 디자인농업을 도입, 적용 필요



<그림> 소비자 패턴의 변화

■ 국가농어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개념, 과정, 현황

- 국가농어업유산 개념과 과정
- 세계중요농업유산 개념과 현황

■ 국가농어업유산 개념과 지정 과정

➤ 국가농어업유산의 개념

- 농어업인이 오랜기간 동안 형성·진화되어 온 보전·유지·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농어업 활동·시스템 및 그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 경관 등 모든 산물

* 예) 구들장 논, 다랑이 논, 돌담 밭, 염전, 둥방, 독살, 저수지 등

➤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목적:

- 오랜기간 동안의 농경·어로행위로 형성된 전통적인 농어업 형상, 시스템 및 기법 등이 결합된 유산자원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 국가농어업유산의 심의 과정과 내용

- 전국시·군에서 신청한 64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및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서, 역사적·생태적 가치성, 지역사회 파트너십,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된 효과성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심사
-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는 최종 심사대상까지 올라온 총 13건 중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1호)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2호)을 농업유산으로 확정(2013.1.22) 11건은 추후 자료보완을 거쳐 재 심의(농업유산 5건, 어업유산 6건)
- 금번에 지정된 국가농어업유산은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를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

■ 세계중요농업유산 개념과 현황

➤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개요

- 창설년도 : 2002년
- 주관기관 : 유엔식량농업기관(FAO, 본부: 이탈리아 · 로마)
- 목적 : 전 세계의 독창적인 농업 문화, 인류 진화 시스템 및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성취하고 통합접근 방식의 농촌개발을 유도
- 등재절차 : ① 국가추천을 받아 입후보지 등록신청(FAO본부) → ② 현지답사 및 서류심사(FAO본부) → ③ 인정(GIAHS 심사)
- 등재요건 : ①식량·생계수단의 확보, ②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 ③전통적 지식·농업기술의 계승, ④사회제도·문화습관, ⑤토지이용 또는 특수한 수자원관리로 조성된 수려한 경관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지식시스템	농업문화	경관
				

➤ 등재현황(2012년 말기준)

구분	국가	세부 내용
등재	11국	19개소(중국 6, 일본 2, 필리핀 1, 인도 2, 칠레 1 등)
후보	19국	31개소(미국 1, 이태리 1, 러시아 1, 브라질 1, 인도 8 등)

■ 제주 국가농어업유산 주요내용

■ 제주지역 국가농어업유산 주요 내용

I. 국가농어업유산의 명칭 : 흑룡만리 제주 돌담밭

II. 국가농어업유산의 주소 및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III. 국가농어업유산자원 추진 T/F팀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

IV. 국가농어업유산자원 관련 현황, 마을 및 조직

- 흑룡만리 농업유산 제주돌담밭 농업유산 규모 : 22,108 Km(총 돌담의 약 60%)
- 국가 농업유산 내 경지면적 : 542.94 km²
- 인구현황 및 지역별 면적 등

V. 국가농어업 유산자원 특징 : 현저한 가치, 차별성 등

- 농업적 유산 가치, 돌담의 명칭, 농림어업 활동, 생물다양성
- 농어업유산의 역사성 · 대표성, 향후 계획, 지정효과 등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내용과 과제

- 제주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주요 내용
- 제주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과제

■ 제주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주요 내용



2013.3.

**“흑룡만리 제주밭담”
FAO GIAHS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INDEX

■ SUMMARY INFORMATION

■ DESCRIPTION OF THE AGRICULTURE HERITAGE SYSTEM

I. 농업유산 '흑룡만리 제주밭담'의 특성

II. 제주밭담 관련 사회·문화적 특성

III. 제주밭담의 역사성

IV. 제주밭담의 현대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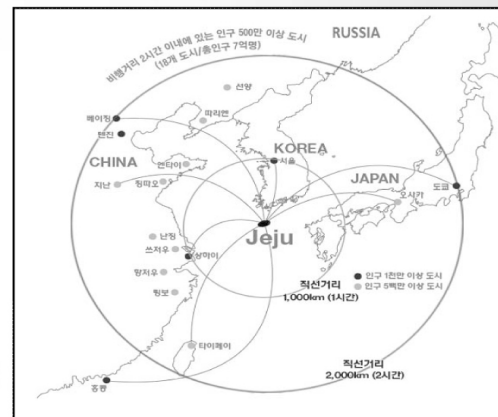
V. 제주 밭담의 위협과 도전

VI. 제주밭담 보존을 위한 노력

VII. 제주밭담 보존·활용을 위한 Action Plan

■ SUMMARY INFORMATION

1. 농업유산 명칭	가칭) 흑룡만리 제주발담 시스템
2. 신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3. 협력기관 · 단체	• 농림축산부 •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연합회 • 제주발전연구원
4. 대상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발농업지역 일대 -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약 90km - 대륙(러시아, 중국)과 해양(일본, 동남아) 연결 요충지 -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세계적 휴양 관광지 • 126도08분~126도58분E • 33도06분~34도00분N
5. 대상지 접근방법	•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행정구역이면서 섬, 항공과 배를 이용한 다양한 교통수단이 가능한 지역임. •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로 약 1시간 소요 • 일본(동경)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로 약 2시간 소요 • 중국(상해)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로 약 1시간 소요 •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배로 약 1시간30분 소요
6. 대상지 면적	541.9km ²



■ SUMMARY INFORMATION

5. 토지 이용	과수원(감귤) 및 밭작물(감자, 당근, 마늘, 무, 양배추, 보리, 콩 등) 재배 중심지역
6. 지형 특성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사면은 3°~5° 정도 매우 완만한 경사이며, 남북사면은 5° 정도로 약간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화산섬임.
7. 기후 유형	- 난대성 · 해양성이면서 아열대 · 온대 · 한대기후 지역 - 강수량(mm) : 제주 1,584.9, 서귀포 2,393.3 - 평균기온(°C) : 제주 15.6, 서귀포 16.9
8. 인구 수	592,449명(232,141세대)
9. 주 생계 방법	관광 · 도소매업 등(77.3%), 농 · 임 · 축 · 수산업(18.4%)
10. 농업유산 SYSTEM 요약 해설	- 제주도는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화산섬 - 화산섬이라는 지형 · 지질적 특성은 이 섬의 척박한 농업환경을 가져왔음 - 화산회토 토양이 주를 이루며 돌과 바람이 많음 - 섬사람들은 토양에서 골라낸 돌을 이용하여 22,000km가 넘는 발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을 막는 기재로 활용했고,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했음 - 이 발담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제주도의 빼어난 농업문화경관으로 제주의 미학을 대표함 - 농지정리 · 도시화 확산 등 슬한 도전을 감내하며, 1,000년이 넘도록 여전히 제주도의 농업을 지켜가고 있음 -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흑룡만리 발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는 발담의 효과적인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농업유산 발담과 제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임

■ DESCRIPTION OF THE AGRICULTURE HERITAGE SYSTEM

I . 농업유산 ‘흑룡만리 제주발담’ 의 특성

국내외적 중요성

제주발담과 식량 · 생계의 확보

발담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제주발담의 지식체계 및 기술

제주발담 관련 문화와 가치체계

제주발담의 농업경관

1. 국내외적 중요성 | '화산섬 제주와 발담의 형성

■ 제주섬의 탄생

- 동경: 126°08'~126°58'E
- 위도 : 33°06'~34°00'N,
- 지금으로부터 200만 년 전쯤
강력한 폭발로 화산활동의 시작으로 섬 탄생
- 유네스코(UNESCO)는 이 섬을 세계자연유산
(World Heritage) 등재, 세계지질공원(World
Geopark) 지정,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함으로써 이 섬이 지닌 특성이
곧 세계적인 자랑거리이자, 인류의 유산인 셈
- 이 섬을 두고 '삼다도(三多島)'라 하는 이유는
가운데 돌과 바람이 우선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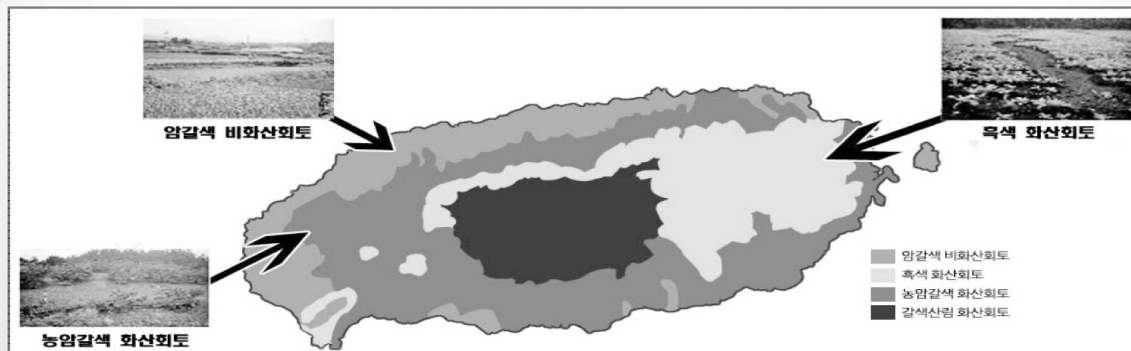
[제주도의 위치]

1. 국내외적 중요성 | '화산섬 제주'와 발담의 형성

■ 제주섬의 토양특성과 분포패턴

➤ 제주섬의 화산회토 특성:

- 강한 산성을 띠고 인산이 결핍된 토양 특성
- 화산회토에서는 작물의 발육성장 저하, 열매의 품질이나 수량에도 문제발생
- 화산회토는 상당히 가벼운 모재(母材)로 구성, 바람에 의한 침식에 매우 약하고, 또 비가 많을 때에는 표토가 쉽게 쓸려가버림
- 제주섬과 같이 연중 바람이 불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화산회토를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온갖 신경을 써야만 함



[제주도의 비화산회토 지역과 화산회토 지역]

1. 국내외적 중요성 | '화산섬 제주'와 발담의 형성

■ 농업의 시작 그리고 돌과 바람

➤ 제주섬에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이 섬이 한반도와는 별개의 독립국으로 존재했던 탐라국 시대로 대략 AD.1~1105년으로 추정함

• 그동안 출토된 이 시대의 유물에 의지해 이 섬에서 농사가 시작된 시기를 짐작

• 제주섬은 화산활동시 흘러내린 용암이 섬 전체를 덮고 있어 산과 들은 물론 바다까지도 돌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때문에 돌은 농사짓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이런 땅을 일구기 시작
작한 것임.

• 이 섬은 대양과 접해 있는 한반도의 최남단 섬임.

• 대양에 접해 있다는 것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수 있는 위치라는 의미,
제주섬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강한 바람에 대비한 생활이 강함.

1. 국내외적 중요성 | '화산섬 제주'와 발담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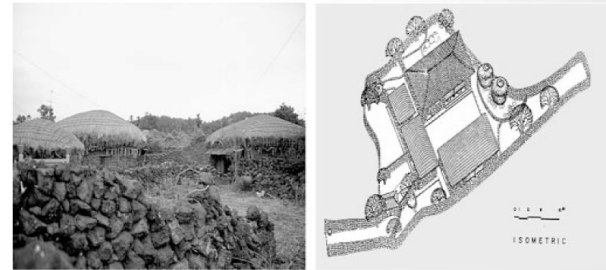
■ 발담의연원

- 제주섬이 '돌의 나라'인 만큼 돌은 극복이 대상이기도 하면서 자원이 되기도 함
 - 그래서 다양한 돌문화가 이 섬에는 존재
 - 돌담만을 놓고 보면, 바다의 어로시설인 '원담'이 돌을 자원으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일 것임



[제주전통 어로기술인 돌그물 '원담']

- 이후 제주전통가옥인 초가를 축조하면 가장 중요한 건축요소 중 하나인 벽을 돌담으로 쌓고, 여기에 울타리돌담인 '울담'을 '울렛담'과 함께 쌓았을 것임.
- 또한 바람을 막기 위해 돌담을 쌓은 지혜는 주변에 산재해 있는 돌이라는 자원을 건축재료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점차 섬 전역으로 확대



[제주전통초가 '울담'과 출입구인 '울레']

1. 국내외적 중요성 | '화산섬 제주'와 발담의 형성

➤ 이렇게 시작된 발담은
제주농업의 차원을 크게 바꾸어놓은 일대 혁명

• 경작지와 인근에 산재한 돌을 이용하여 발담을 쌓음으로써
연신 불어대는 바람을 막고 토양을 보호함으로써 작물의 생육을 도왔고,
이는 곧바로 수확의 결실을 향상하는 토대가 되었음

• 발담은 경사지가 큰 제주지역에서 비바람에 의한 토양의 침식을 막아
자연비옥도가 유지되는 표토를 보전과 토지의 경계로서의 의미,

• 삶의 지혜와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문화적 산물



[제주섬의 발담]

1. 국내외적 중요성 | '화산섬 제주'와 발담의 형성

■ 발담의 형성과정

➤ 제주섬의 발담은 개인 또는 가족단위라는 소규모 공동체에 의해 쌓여짐

- 경작과정에서 나오는 돌들을 경작지에서 먼 곳으로 옮기기보다는 그 주위에 쌓는 편이 훨씬 쉽고 노동력도 덜 들어감
- 그런 만큼 제주 전역에 걸쳐 형성된 발담은 시간적으로 볼 때 매우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발담을 쌓는데 부족한 돌은 인근지역에서 구해오기도 했으며, 제주 전역에 걸쳐 현무암 발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하지만 해안지역에서는 바닷물에 의해 침식되어 모서리가 둥근 돌들을 이용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면암을 운반하여 발담을 쌓기도 했음



화강암 발담



조면암 발담



해안지대 발담

1. 국내외적 중요성 | '화산섬 제주'와 발담의 형성

■ '흑룡만리' 제주발담의길이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km)
임 야	463.37	443.24	906.61
경 지	276.3	265.64	541.94
기 타	166.44	108.28	274.72
대 지	29.51	20.99	50.50
총면적	977.88	870.39	1,848.27
비율(%)	52.9	47.1	100

〈제주도 행정구역별 용도별 면적〉

발담의 길이는
제주도 전체 경지면적인 541.94km²에
평균 돌담길이인 40.796km를 적용하면



22,108km (=541.94km² × 40.796km/km²)
=22,108.9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가능

• 총 돌담 면적 : 약 36,000km (60% 이상 발담)

➤ 제주섬의 발담을 두고 '흑룡만리(黑龍萬里)'라 부르는 이유

➡ 검은색을 띠고 있는 현무암의 발담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구불구불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흑룡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1. 국내외적 중요성 | 제주발담의 국내외적 대표성

■ 한반도부와와의 차별성

➤ 제주도는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솟아난 섬이라는 특성은 기후, 지질, 토양특성의 차이를 가져왔음

- 이처럼 다른 탄생배경으로 인한 토양특성의 차이, 기후의 차이 등은 제주섬과 한반도의 삶의 방식 간의 차이를 가져옴
- 제주섬을 수놓은 발담은 한반도부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모양새와 규모인 구멍 송송 뚫린 검은 현무암 돌담의 끝없는 행렬은 논농사 중심의 한반도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발농사 문화권인 제주섬만이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풍경임

➤ 이 같은 특성과 미적 탁월성으로 인해 2006년 7월 26일 문화관광부는 형성해 온 문화 중 대표성을 지닌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선정

- 학국GIS학회에서 발행한 'GIS를 활용한 농촌경관 분석 사례연구'에서 제주도 돌담경관을 중심으로 농촌 경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경관에 대한 관리 및 보전에 노력 강조
-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제주의 정취에 빠져 두 번이나 제주를 방문했던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제주를 예찬

1. 국내외적 중요성 | 제주발담의 국내외적 대표성

■ 세계 유사 문화와의 차별성

➤ 제주섬 발담의 세계적 고유성과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유사한 유럽의 보카주(bocage) 경관과 비교

- 세계적 시야에서 보면 돌담으로 토지를 두른 모습은인 제주섬과 유럽에서 동시에 볼 수 있음
- 얼핏 첨단기술시대의 농업방식으로서 토지이용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함

[제주]



[제주 발담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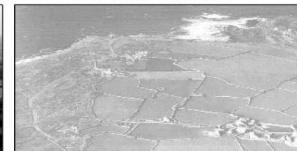
[아일랜드 보카주 경관]

[아일랜드 보카주]

[프랑스 보카주]



[프랑스 보카주 경관]



[잉글랜드 콘월(Cornwall) 주의 보카주 경관]

[잉글랜드 콘월주의 보카주]

➤ 두경관의기능상 유사점

- 첫째, 소유지 경계리는 점
- 둘째, 두지역이 대륙과 해양의 접이지대(漸移地帶)에 위치했다는 특성에 따라 울타리가 방풍역할을 한다는 점
- 셋째, 가축을 보호하고 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점
- 넷째, 울타리와 생태계와의 연관성으로 바람을 거르고 토양유실을 막아 식물이 자라는 데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과 다양한 식생의 교집합이 가능해짐

➤ 두경관의기능상 차이점

- 첫째, 울타리 형성에 관계된 인원 투입 정도가 다름
 ↳ 제주섬의 돌담은 개인 또는 가족단위라는 소규모 공동체에 의해 쌓아져왔음
 ↳ 반면, 유럽 보카주 경관은 인클로저운동에 의해 비교적 짧은기간에 형성
 ↳ 이 점은 비교적 단기간에 구획정리(Remembrement)를 위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울타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줌
- 둘째, 울타리 안 토지이용 측면에서 제주도는 거의 발농사를 짓음
 ↳ 반면, 보카주 경관은 목축을 위한 초지 재배나 소의 방목 등 혼합농업이 이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음

2. 제주발담과 식량·생계의 확보 | 제주도의 농업현황

■ 제주도의 산업구조와 농가현황

➤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등 2개의 행정시로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제주시 42만1,683명, 서귀포시 15만5,504명으로 모두 57만7,187명
- 제주특별자치도의 농가인구는 2000년 12만9,152명이었던 것이 2010년 현재 10만4,802명으로 감소함
- 제주지역 산업구조는 2010년 기준, 서비스업이 68.3%, 농림어업은 17.7%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

〈제주지역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가구, 명, %)

구분	농 가				농가인구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구성비	남	여
2000	39,114	18,288	9,948	10,878	129,152	23.8	63,839	65,313
2010	35,388	13,363	9,583	12,492	104,802	19.2	51,276	53,526
증감	△3,726 (△9.5)	△4,925 (△26.9)	△365 (△3.7)	1,614 (14.8)	△31,407 (△18.9)	△4.6p	△12,563 (△19.7)	△11,787 (△18.1)

※ 농가인구구성비는 제주도 전체 추계인구에 대한 비율임(자료통계청)

〈제주지역 산업별 비중〉

(단위 : %)

연도 산업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림어업	18.7	16.5	16.4	17.6	19.0	17.7
광업	0.3	0.2	0.2	0.1	0.3	0.2
제조업	3.1	2.8	3.2	3.0	3.8	4.2
전기·가스·수도	1.9	2.1	1.8	1.0	1.2	1.4
건설업	10.0	9.5	9.3	8.0	8.1	8.2
서비스업	66.0	68.8	69.0	70.3	67.6	68.3

2. 제주발담과 식량·생계의 확보 | 제주도의 농업과 발담의 지속가능성

➤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는 한반도부와는 달리
발농업 중심지역

• 화산섬의 토양특성으로 인해 강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농사 중심

• 제주지역에서의 논농사 지역은 0.1%로, 이 같은 상황은 발담의 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발담을 허물었으나 이후 여러 어려움이 나타남에 따라 다시 발담을 쌓기도 했음

• 제주도의 발담은 어느 특정지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섬 전역에 분포

• 제주의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발담의 보존에 대한 이해와 의지는 모든 도민이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농업유산 발담의 지역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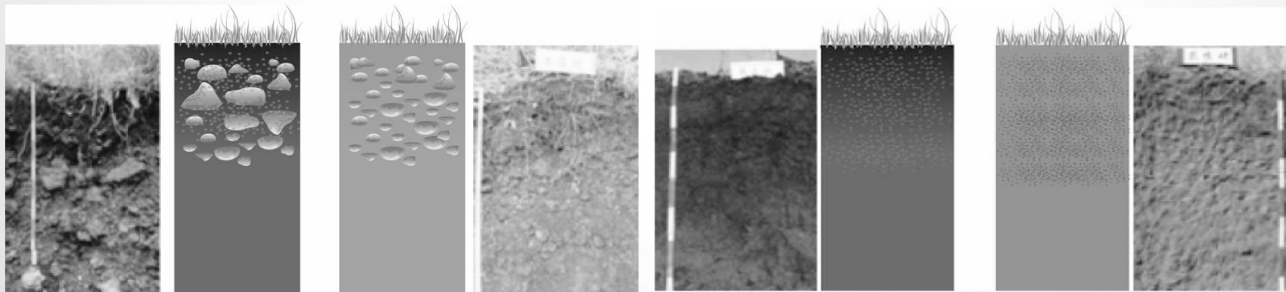
행정시별	면 적(km ²)		
	계	담	전
계	541.94	-	541.94
제 주 시	276.30	-	276.30
서귀포시	165.64	-	165.64

3. 밭담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 제주 밭담의 생태적 특성

➤ 밭의 위치, 규모, 형태에 따른 작물의 재배로 종 다양성은 물론 유전자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제주 밭담은 생태계들 간의 차단의 의미가 아닌, 분리이면서 통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돌담은 경계의 표시일 뿐 아니라 미생물의 통로
- 제주도에서 바람은 원래 식물이 자라는 데 영향을 주는데 밭담이 바람을 순하게 하여 키가 작은 초본류가 자라는 데 좋은 영향을 줌
- 토양의 유실을 막아 미립질 토양과 밭에 주는 퇴비의 유실을 방지
 - ↳ 말 그대로 제주 돌담은 생태계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



밭담이 없어서 토양이 유실되어
자갈이 많아 농사에 불리한 토양의 예

밭담이 있어서 토양이 쌓여 농사에 유리한 토양의 예

3. 발담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 제주 발담의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은 생태계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자다양성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음

• 제주 발담의 생물다양성은 오름, 곳자왈, 하천, 습지, 뱅딤, 조간대 등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생태계다양성

•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의 토양, 아열대와 온대기후, 강수량 등에 의해 나타나는 종 다양성

•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생육환경 및 전통지식에 기대어온 전통농법이 22만여 개의 서로 독립된 발담의 유전자 다양성을 갖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3. 발담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 제주 발담의 생물다양성

■ 발담의 생태계 다양성

오름경계형 발담



[아끈다랑쉬 주변의 밭]



[과오름 분화구내의 밭]

꽃자왈경계형 발담



[꽃자왈 주변의 밭(산양꽃자왈)]



[꽃자왈 주변의 밭(산양꽃자왈)]

하천경계형 발담



[안덕계곡의 모습]



[안덕계곡 주변의 밭]

3. 발담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 제주 발담의 생물다양성

습지경계형 발담



[하도철새도래지 모습]



[하도철새도래지 주변의 발]

뱅딴형 발담



[중산간의 뱅딴(초지)]



[중산간의 뱅딴 주변의 발]

조간대경계형 발담



[조간대 경계형 발]



[조간대 경계형 발]

3. 발담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 발담의 종 다양성

➤ 발담의 종 다양성은 해안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수직적 기후분포를 보이는 아열대, 온대, 한대 고산기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인자형 발담

➤ 토양환경에 따라 작물재배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화산회토형 발담, 비화산회토형 등으로 구분

■ 아열대기후지역

■ 온대기후지역

■ 한대기후지역

3. 발담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 유전자다양성

작지형 발담



[작지형 발의 모습]



[작지형 발의 파종모습]

빌레형 발담



[빌레 주변의 발1]



[빌레 주변의 발2]

사구형 발담



[사구 주변의 발1]



[사구 주변의 발2]

4. 제주발담의 지식체계 및 기술 | 발담의 구조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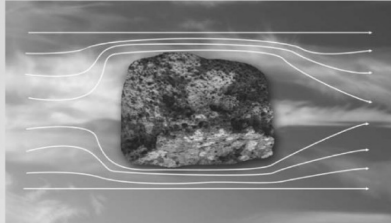
■ 발담을 구성하는 돌의 형태

- 제주 발담을 구성하는 돌의 모양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 해안지역에서는 바닷물의 작용에 의해 둥글게 다듬어진 바닷가의 돌로 그 크기도 작은 편으로, 돌들 사이의 접촉 면적이 넓어 틈새가 거의 없다.
 - 중산간 저지대에서는 돌담을 이루는 돌들이 거의 직각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모서리가 각이진 돌들로 쌓아진 돌담인 경우에는 돌과 돌 사이의 접촉 면적이 크고 긴축을 앞뒤로 하여 쌓고 있다.
 - 중산간 고지대에서는 각이진 돌과 모서리가 둥근 돌을 함께 사용하여 발담을 쌓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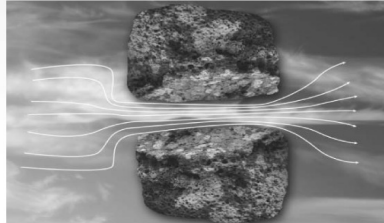
■ 제주 발담을 지탱하는 힘

- 발담을 구성하는 돌의 모양새와 축조 방법에 따라 돌담이 무너지지 않고 그토록 오랜 세월을 지탱해온 원리를 설명가능 => 베르누이 법칙
 - 제주 발담을 이루는 돌들이 돌담을 지탱하는 힘으로서 우선 마찰력을 생각할 수 있음
 - 화산활동의 결과로 생겨난 것으로 많은 기공들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돌과 돌 사이의 접촉면은 매우 거칠고 많은 기공들이 있음.
 - 쌓는 방식을 보면, 밑돌 두개 사이에 윗돌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계속 쌓아나감
이는 수직항력을 줄임으로써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윗돌들에 의해 밑돌이 받는 힘의 방향을 분산시킨 결과임.
 - 발담 틈새의 유무 또는 그 면적과 바람의 속력과의 관계도 발담을 지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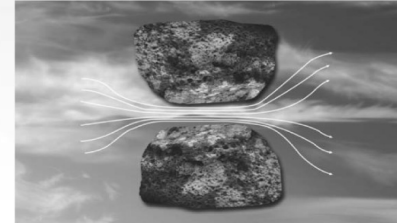
4. 제주발담의 지식체계 및 기술 | 발담의 구조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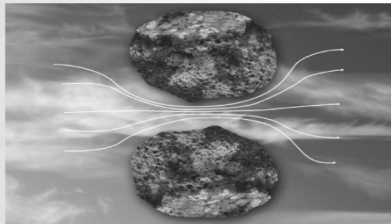
[그림1] 발담 틈새를 지나는 바람의 유선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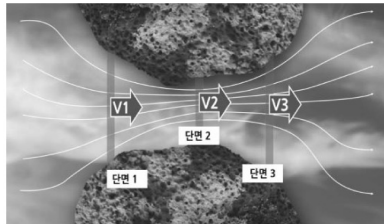
[그림2] 바람의 유선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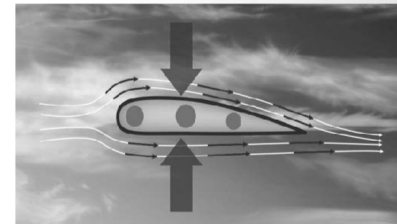
[그림3] 바람의 유선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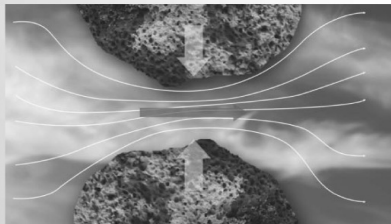
[그림4] 바람의 유선분포



[그림5] 바람과 속도의 관계



[그림6] 비행기 날개 단면과 양력원리



[그림7] 바람의 속도와 마찰력



[그림8] 제주발담의 형태

➢ 이처럼 발담이 강한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돌의 형태와 그에 따라 돌이 받는 마찰력 그리고 돌과 돌 사이의 구멍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4. 제주밭담의 지식체계 및 기술 | 밭담의 유형

쌓아있는
모양에 따라



[외담]



[접담]



[잣담]

돌담이 쌓아 있는
위치에 따라



[울담]



[울렛담]



[산담]

용도에 따라



[환해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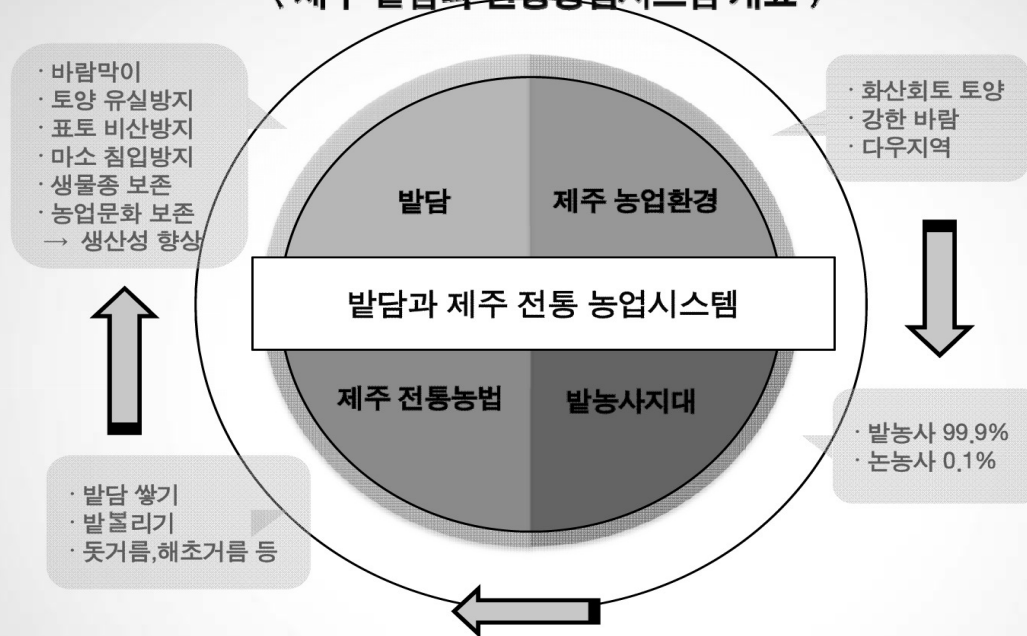
[원담]



[불턱]

4. 제주발담의 지식체계 및 기술 | 발담과 농업시스템

〈 제주 발담과 전통농업시스템 개요 〉



➤ 제주 발담은 그 자체가 악조건의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독특한 농업시스템

4. 제주밭담의 지식체계 및 기술 | 밭담과 농업시스템

■ 밭담과 작물

➤ 바람을 막아내기 위해 밭담을 쌓은 만큼
그 밭담의 높이에 따른 재배작물의 선택은 불가피한 일

- 토양특성도 고려되었겠지만, 밭담이 낮은 경작지에서는
감자, 당근, 고구마, 무, 배추, 마늘 등 구근류로 키가 작은 작물을
재배해야만 바람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비교적 밭담의 높이가 높은 밭에서는 조, 보리 등의 작물을 재배

■ 선택진압, 시비 등 전통적인 토양관리방법

- 밭볼리기
- 밭놀림
- 거름: 돛거름, 해초 등

4. 제주밭담의 지식체계 및 기술 | 밭담과 농업시스템

Ⅰ 토양 유실을 막는 밭담



[비로 인해 토양이 유실된 경작지]



[토양유실을 막기 위한 돌과 비닐 시설]



[토양유실을 막기 위해 밭 가운데 쌓은 밭담]



[토양유실을 막기 위해 밭담 곁에 키 큰 작물이나 나무를 심었다]

5. 제주발담 관련 문화와 가치체계

Ⅰ 수놓음 공동체문화 : 품앗이

Ⅰ 토양특성에 따른 문화 차이

〈 토양특성과 문화와의 관계〉

구 분	비화산회토 지역	화산회토 지역	비 고
김매는 노래	쫄른 사땃소리	진 사땃소리	농업생산력이 높은 비화산회토지역은 흥겨운 민요인 쫄른사땃소리, 화산회토지역은 후렴이 길고 주술적이며 슬픈 진사땃소리 김매는 노래를 부름.
제사습관	분짓거리 (제사분할)	장남제사	농업생산력이 높은 비화산회토에는 재산도 나누어 주고 제사도 나누어 지냄. 반면에 생산력이 낮은 화산회토지역은 재산을 분할하면 모두 힘들기 때문에 재산(토지)을 장남에게만 주고 제사의무도 장남만 가짐.
고인돌, 유적지	고인돌, 유적지 발견됨	고인돌, 유적지 발견되지 않음.	토양의 농업생산력에 따라 농업생산력이 낮은 화산회토 지역에서는 고인돌 또는 유적지가 발견되지 않음.
파종방법	이랑파종	산파	화산회토는 이랑을 만들어도 비가 오면 무너지는 특성 때문에 산파를 하고 비화산회토 지역은 반드시 이랑 파종을 함.

6. 제주 밭담의 농업경관 | 제주밭담의 경관가치

- 제주는 삼다도(三多島, 돌 · 바람 · 여자)라고 불릴 정도로 돌이 많다.
- 땅이 척박하고 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돌을 이용하여 밭의 경계를 구분 지었던 것을 밭담이라고 한다.
- 제주의 밭담은 서로 완만한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형에 맞게 계단형식으로 조성된 경우도 있는 등 독특하며 오묘하고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제주의 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밭담]



[파울 클레, 큰길과 작은길]



[가파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밭담은 소유의 경계선이자 땅을 모자이크화 하여 계절의 변화를 담아내는 새로운 풍경이기도 하다.]



➤ 제주 밭담은 제주섬 전체를 모자이크화한 예술작품 !

II. 제주발담 관련 사회 · 문화적 특성

1. 제주도의 돌문화 | 제주도 돌문화의 상징적 이미지

〈제주도 돌문화의 상징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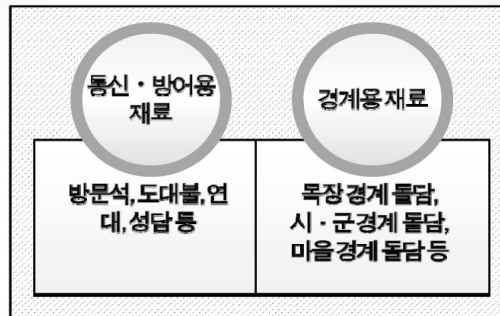


➤ 7가지 키워드로 요약 가능

1. 제주도의 돌문화 | 제주지역의 돌 자원, 현무암의 쓰임새

〈 제주도에서 돌의 용도와 이용실태〉

■ 특수적 이용



■ 일반적 이용

건축용 재료	생산용 재료	생활도구용 재료	신앙생활용 재료	비석용 재료	놀이용 재료
집담, 울렛담, 우영담, 축담, 섬광, 물광, 놀광, 장항급, 구들돌, 불력 담, 정주석, 포구 축조 용 돌담, 봉천수 · 용 천수 보호용 돌담 등	발담, 잣담, 원담, 뭇 도고리, 돌구시, 돌 테, 돌바퀴, 방돌, 닛 돌, 연자마, 솟굽계, 곰돌, 머들 등	돌화로, 봉덕, 소줏 돌, 갈돌, 솟덕, 돌등 잔, 물확, 물통, 돌세 면기, 디딜판, 정 ㄱ 레, 풀 ㄱ 레, 돌방아, 돌절구, 돌확, 약 ㄱ 레, 기들 등	지석묘, 석탑, 산담, 동자석, 문인석, 망 주석, 방사탑, 돌하 르방, 돌미륵, 칠성 돌, 상돌, 신당 보호 용 돌담 등	공덕비, 송덕비, 추 모비, 청송비, 불망 비, 열녀비, 효녀비, 효자비, 건립 기념 비 등	공깃돌, 들돌(등돌), 이시계리(石蹴り) 돌, 비석치기 돌 등

2. 제주도 돌문화의 화신(化身), 돌담

- 돌담은 제주 돌문화의 근간이자 화신이다.
- 돌담은 제주 돌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주자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 제주도 전역에서 돌담을 관찰할 수 없는 지역은 거의 없다.
- 그만큼 돌담은 제주도라는 섬의 특성과 화산활동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능체로 작용한다.
- 또 다른 관점에서는 돌담이 제주도민들의 모진 생명력을 의미

〈 주요 돌담의 종류와 기능 〉

돌담 종류		위치(장소)	기능	형태
택지 내부 및 입구		울(집)담	택지 가장자리	바람차단, 시선차단
		울렛담	마을길 · 택지 입구	바람차단, 시선차단
		우영담	텃밭(채전) 가장자리	경계선, 바람차단
		통싯담	화장실 가장자리	시선차단, 돼지보호, 오물의 누출차단
택지 외부	마을 내 외부	밭담	경작지 가장자리	경계선, 우마차단, 바람차단 (작물보호 · 침식방지)
		산담	묘지 가장자리	경계선, 우마차단, 산불방지
		성담	성곽 가장자리, 해안지구	행정의 효율성, 방어
		잣성	중산간 및 산간 목장지구 내 / 가장자리	목장 간 경계선, 우마 분실 방지
	해안가	불턱담	과거 해녀탈의장 가장자리	시선차단, 바람차단
		원담	해안가 연안	어류 포획
		용천수 돌담	용천수 가장자리	물 보호, 시선차단
		봉천수 돌담	봉천수 가장자리	물 보호, 시선차단
		포구용 돌담	포구 내부 및 가장자리	칸 구획 및 바람차단, 어로활동

[제주도를 방문한 외부인들의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울담과 밭담 그리고 산담임]

➤ 돌담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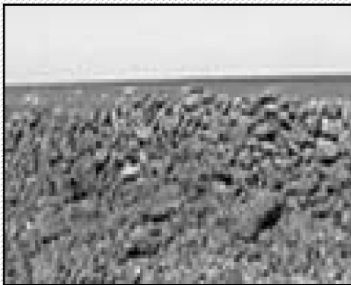
[울담]



[산담]



[원담]



[환해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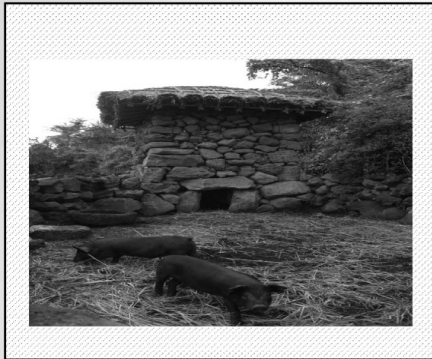


[볼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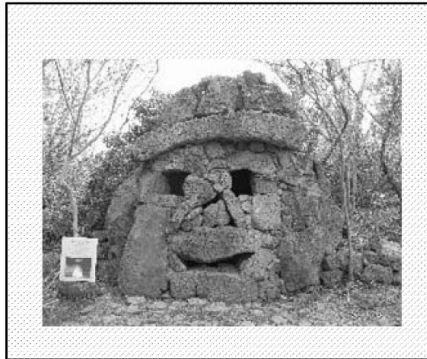


[방사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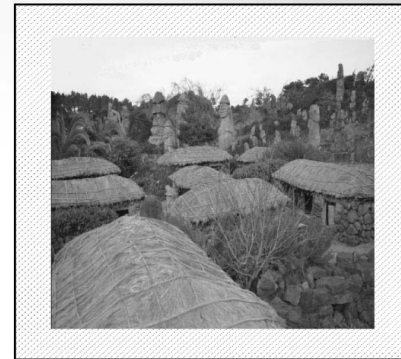
3. 돌문화 현대적 활용 공간



[제주돌문화공원 내 통시 재현]



[북촌돌하르방공원의 돌하르방 조형물]



[제주 금릉식물원]



[제주돌문화공원의 다양한 돌문화 전시물]

Ⅲ 제주발담의 역사성

1. 고문헌으로 본 제주 발담

〈 문헌에 나타난 발담의 기록 내용〉

문헌명	저자	기록 연대	유래	축조 과정	돌담의 기능		
					소유지 경계	우마 출입방지	토양 · 작물 보호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행 · 홍언필	1530	○		○		
南溪小乘	임제	1577-78				○	
南槎錄	김상헌	1601		○			
耽羅誌	이원진	1653	○		○		
南遷錄	김성구	1676		○		○	
南槎日錄	이증	1679				○	
南宜博物	이형상	1704	○		○	○	
耽羅誌草本	이원조	19세기 중반	○	○		○	
KOREA	Hermann Lautensach	1945		○		○	○
增補耽羅誌	담수계	1954	○		○	○	○



〈담라지기록내용〉

《담라지》는 1653년(효종 4) 이원진(李元鎭)이 편찬한 전라도 제주목 · 정의현(義興縣) · 대정현(大靜縣) 지금의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읍지로 내용면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으로부터 인물 · 시문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특징을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17세기 중엽의 제주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문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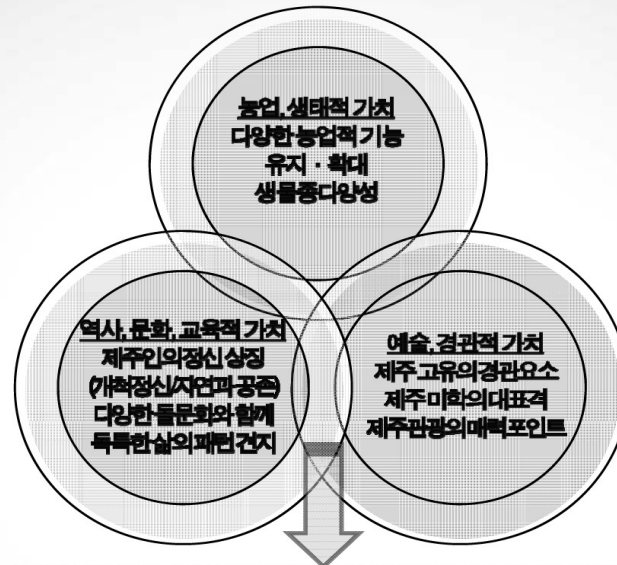
이 외에도 이원진의 《탐라지(耽羅誌)》는 제주관아에서 내려오는 '주기'를 대부분 취했고, 이형상의 《남한박물(南宦博物)》은 《탐라지》를 대부분 참고하였기 때문에 두 문헌에서는 발담이 유래와 경계기능이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문헌상으로 살펴본 발담은

- 첫째로, 그 유래가 비교적 명확하며, 당시 제주 농업을 재조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
- 둘째로, 제주민들이 경작지를 개척 · 개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성
- 셋째로, 발 주변 돌담의 기능으로 발의 소유지 경계, 우마의 출입방지, 토양과 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돌담이 방축과 토양의 침식 방지기능을 통해 제주의 목축문화와 제주의 자연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온 발담을 통해 제주민들이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농업활동을 이어 온 지혜를 엿볼 수 있다.

IV. 제주발담의 현대적 의미

1. 제주발담의 현재 및 미래가치 | 발담의 다양한 가치



미래가치

- 농어업유산 지정 통한 제주발담의 다양한 가치 확대
 - └ 발담의 가치 재인식을 통한 보존 및 연계 활용 강화
-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
 - └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등 제주형 미래농업 발전 토대
- 제주 미래관광의 핵심코드 창출
 - └ 문화관광, 농촌관광 등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견인
- 선대들의 지혜 · 개척정신을 후대에게 전하는 교육적 가치

V. 제주 발담의 위험과 도전

1. 밭담의 위협요인들

농업의기계화와
과학영농의 도입



밭에 존재하는
돌담의기능 감소

“ 농업의기계화는 밭담에서의기계사용을 불편하게 하였다고
특히나 곡선형태의 돌담은 기계의 접근을 어렵게 하였음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진 고산지역의 농경지.
원래 무장전(無牆田)지역인 이곳은
제주 밭담의 원풍경과 크게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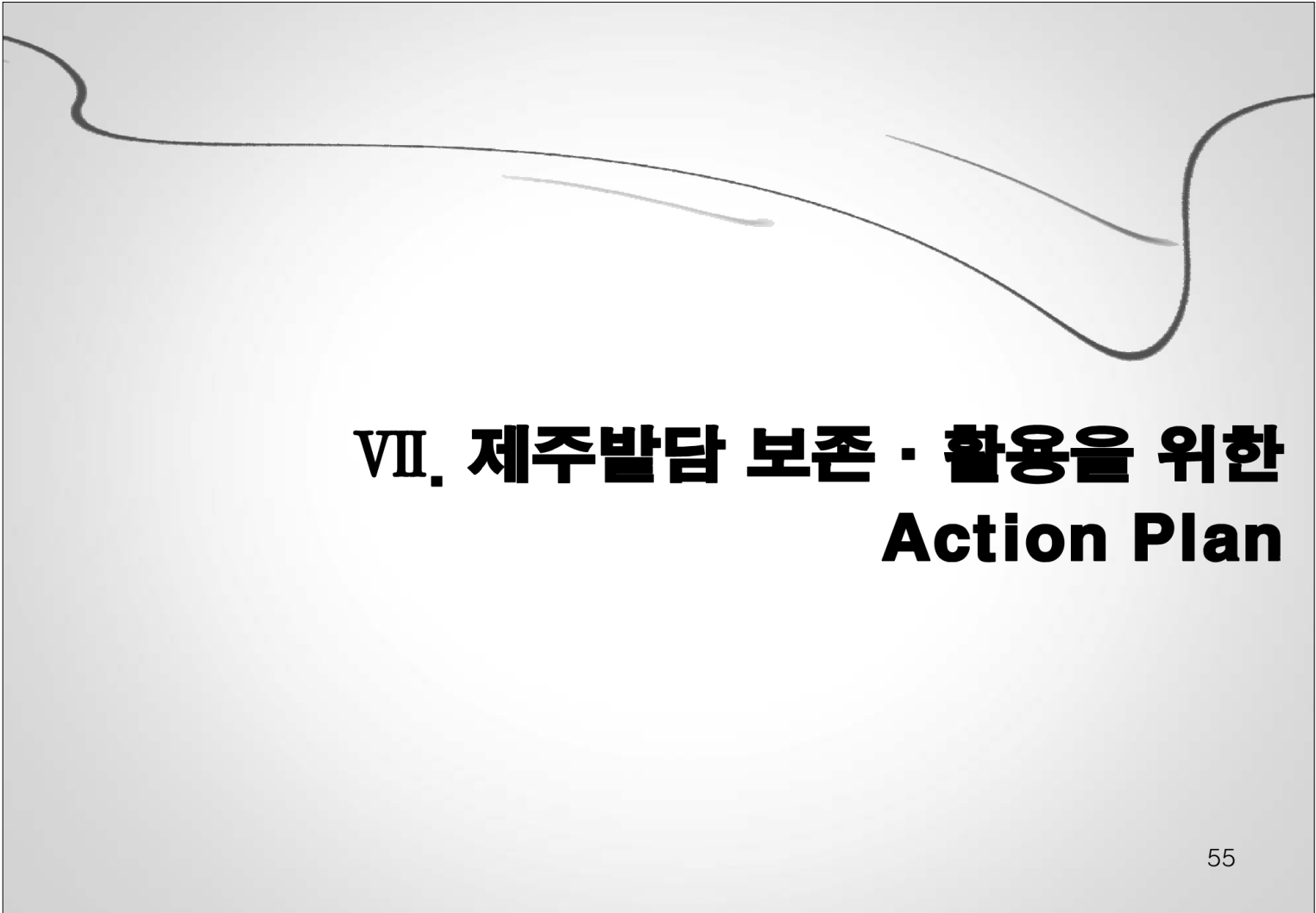


경지정리사업 후의 밭담 모습(수원리)

VI. 제주발담 보존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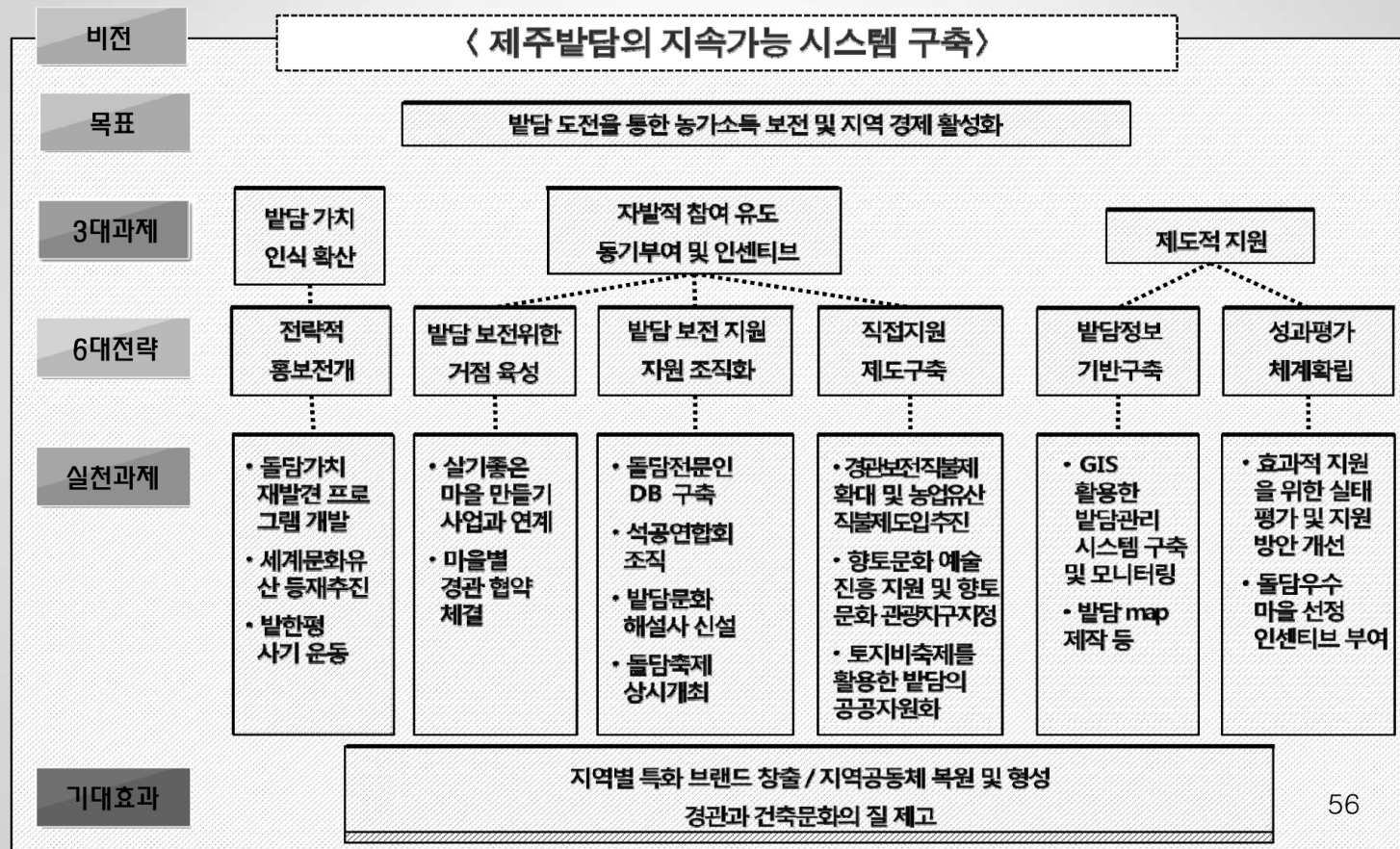
1. 실용적인 고려

- 우리나라 농림부 추진과정
 - 국가농어업유산 제도 지정 법, 고시, 지원정책 등 노력
- 지자체 추진과정
- 주민단체 / (친환경)농업인단체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등
- 발담 관련 연구, 세미나, 사진전 등 문화행사 실적

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a light gray gradient. A thin, dark, wavy line starts from the top left, curves across the top, dips into a loop on the right side, and then continues towards the center. The text is centered in the lower half of the slide.

VII. 제주발담 보존 · 활용을 위한 Action Plan

1. 농업유산 제주발담 보존의 비전과 추진전략



■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주요 과제

■ 농업유산 가치 인식 확산 등 도민공감대

■ 농업유산 지원조례 제정

■ D/B구축및 관리·보존·복원·활용·지원등방안

■ 장인, 해설사 육성 및 농업유산 아카데미 운영

■ 지역 자원화·브랜드화 및 지역공동체 복원, 형성

■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2013.3.8.



**농업유산에 대한 관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제발표

제주경관자원(제주발담) 평가시스템 구축과 적용

고 성 보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경관자원(제주발담) 평가시스템 구축과 적용

고 성 보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I. 서론

최근들어 WTO/DDA,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폭의 확대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산물가격의 하락,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농촌지역의 공동화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농업·농촌의 환경자원이 갖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환경자원, 그 중에서도 제주가 관광중심지인 점을 감안해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채, 감귤, 발담 등에 대한 경관보전직불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유채의 경관보전직불제 단가산정은 경관작물인 유채를 재배할 경우의 수익과 일반작물의 재배를 통한 수익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감귤의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에 필요한 단가산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고성보, 2007)되었지만, 아직도 제주발담이라는 경관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에 필요한 기초연구는 미진하다.¹⁾

더욱이 기존의 제주돌담의 가치평가(이상영, 2006), 농촌경관가치 평가(김광임 등, 2005) 등을 비롯해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²⁾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포괄적·평균적·절대적인 가치를 추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본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김광임 등(2005)에서의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는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해서 심미적 가치평가결과에서 선정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농촌경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정도의 농촌경관 유지 또는 보전하기 위해 농촌경관보전기금을

1) 이상영(2006)은 돌담보전직불제에 대해 결론차원에서의 간단한 언급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로 보기에는 어려움.

2) 한상열(2000, 2003), 이주희 등(2001), 허주녕 등(2001), 이영경 등(2006).

마련하고자 할 때 지불의사금액을 질문해, 우리나라의 농촌 경관의 평균적 경제적 가치만을 평가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인 제주돌담을 대상으로 한 이상영(2006)의 연구에서도 제주돌담의 공익적 가치를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해 보전기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지불의사금액을 질문해 평균적 경제적 가치만을 추정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주발담의 전체, 전반적인 농촌경관을 대상으로 평균적인 입장에서 그 가치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발담과 농촌경관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자원을 보전·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 예들 들면 경관보전직불제 도입과 개략적인 지불금액 산정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은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농촌경관 또는 제주발담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상대적 아름다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상대적 평가시스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경관과 제주발담의 경관가치를 결정하는 평가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들의 중요도는 각각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 돌담자원의 평가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인 이상영(2006)에 따르면, 제주 방문객의 경우 제주도 돌담의 기능의 1순위는 농촌경관제공 기능이며 이는 돌담의 공익가치 중에 존재가치(Existence Value)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³⁾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발담의 농촌경관제공기능을 갖는 존재가치 측면에서 제주발담이라는 경관자원의 가치평가 요소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해적·구체적·상대적·객관적인 경관자원평가시스템(Landscape Resource Assessment System, LRAS)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제주도 발담의 차별화된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에 필요한 현장 발담의 등급판정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이 결과를 경관자원인 제주발담의 절대적 가치평가액과 적절히 결합시켜, 상이한 지역에 존재하는 동일한 경관자원의 상대적인 등급결정과 객관적·절대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3) 돌담가치는 첫째, 현재 나의 생활에 돌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용가치(Use Value) 둘째, 장래 나의 생활을 위해 돌담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생기는 선택가치(Option Value) 셋째, 돌담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존재가치(Existence Value) 넷째, 돌담은 후손들에게 물려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상속가치(Bequest Value) 등으로 구분함.

II. 경관자원으로서의 제주도 발담의 가치 평가 요소 추출

1. 경관자원 평가시스템 구축과 현장적용 과정의 개요

경관자원인 제주도 발담의 평가시스템 개발과정과 현장 적용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돌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치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결정하는 전문가 DELPHI 1차 조사(경관자원인 제주 발담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한 의견포함)이다.

2단계는 이러한 가치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경관자원인 제주도 발담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고 이것을 각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가치평가요소 기준에 의거해 정해진 등급(예를 들면, A, B, C의 3등급)으로 분류하는 전문가 DELPHI 2차 조사이다.

3단계는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모든 가치평가요소(예, 밀도·군락, 주변조화성, 조성연대, 원형보전성, 발담높이, 발담형태 등 6가지 요소)를 그대로 정책에 적용했을 때 평가 작업이 너무 복잡하므로 현실 정책 적용성을 감안해 가치평가요소의 축소와 가중치의 재조정작업인 전문가 DELPHI 조사결과를 활용한 분석 작업이다.

4단계는 축소된 경관자원의 가치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이미 관련 전문가들에 평가된 100매 사진을 3가지 요소인 밀도·군락, 주변조화성, 원형보전성으로 축소해서 재분석하고, 각각의 요소에 따른 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3가지 가치평가요소에 대해서 등급 표준(A, B, C) 사진 5개씩을 선정하고, 현장 평가시 이용될 3가지 평가용 표준 판넬을 제작한다.

5단계는 현장 관측조사(평가) 단계로서, 3가지 평가용 기준판넬을 이용해 제주도내 8개 조사 포인트의 각각의 필지에 대해서 4명의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한 관측조사(평가)를 실시해, 각 필지별로 발담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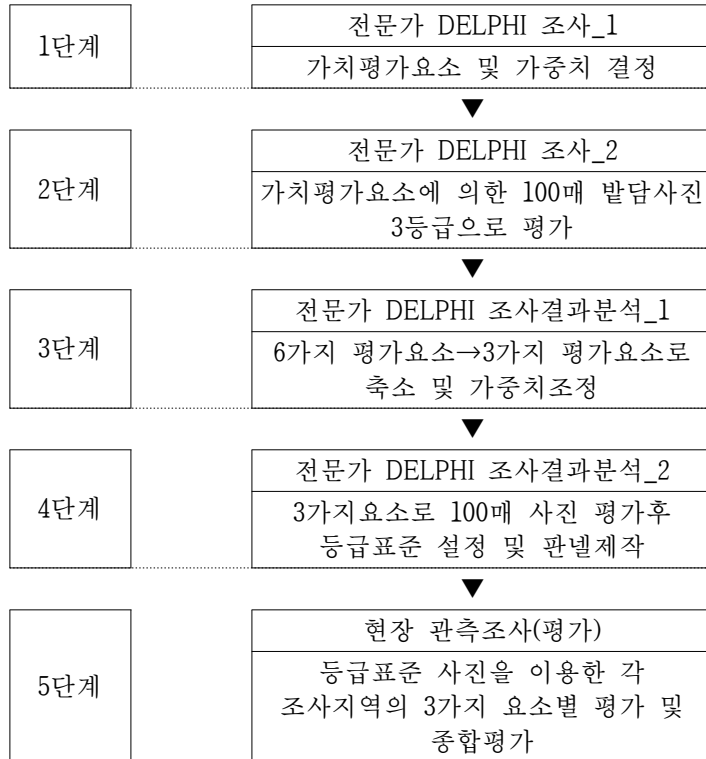


그림 1. 경관자원(제주도 발답)의 평가시스템 개발과 현장적용의 흐름도

2. 전문가 델파이 설문지의 구성

돌담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의 구성은 건축 3명, 관광 4명, 문화 및 문화재 7명, 미학 3명, 방송 및 기자 3명, 사진 2명, 도시계획 1명, 평론 1명, 사학 2명, 사회학 1명, 도예 1명, 석공예 1명 등 총 31명이다. 이와 같은 제주지역의 돌담 전문가 31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제주도 발답 가치를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을 정할 때, 통상적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발담 가치 평가 요소	
① 밀도·군락	발담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발담의 길아·규모 개념을 포함)
② 주변 조화성	조화성 - 자연물(오름, 작은나무등), 재배작물(유채, 당근 등)등의 주변 환경과 어우러짐 부조화성 - 발담 주변의 인공시설물(하우스, 집, 철타 등) 등으로 환경과 안 어울림
③ 조성 연대	발담을 쌓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지’ 또는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지’를 직관적으로 느끼는 정도 (전통적인지, 현대적인지) - 인위적으로 돌을 다듬어서 쌓았는지 여부
④ 원형 보전성	발담 원형 보전여부, 발담축조형태가 제주적인지, 원형성 등
⑤ 발담 높이	발담을 쌓은 ‘높이’에 따라 느끼는 정도, 너무 높거나 낮으면 가치가 떨어짐
⑥ 발담 형태	발담이 ‘직선인지 또는 곡선인지’에 따라 느끼는 정도, 외담인지, 겹담인지에 따라
기 타	

“선생님께서서는 제주도 발담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요소들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3가지 요소에 대해 전체 합계가 100%가 되게 가중치를 준다면, 각각 얼마를 부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요소	중요 순위		가중치 (중요도)
① 밀도·군락	1순위	() 번	() %
② 주변 조화성	2순위	() 번	() %
③ 조성 연대	3순위	() 번	() %
④ 원형 보전성			합계 100 %
⑤ 발담 높이			
⑥ 발담 형태			
기타 :			
기타 :			

3. 발담가치 평가 주요 요소 도출

전문가들이 제시한 3가지 주요요소들의 가중치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 전문가들은 주요 요소로 ‘주변조화성(24.8%)’, ‘원형보전성(24.5%)’, ‘밀도·군락(23.2%)’ 등이 큰 차이 없이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발담형태(14.7%), 조성연대(12.4%) 등의 순으로 들고 있다.

‘원형보전성’은 발담이 ‘얼마나 해당 발과 관련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축조되었는지’, ‘최근에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축조되어있는지’, ‘제주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축조되었는지’ 등을 평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허물어진 상태’에 대해 ‘그것이 주변 발담과 조화를 훼손하지 않을 정도이면 그대로 두는 것도 미관을 해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한 ‘경미한 훼손은 간단한 손질을 통해 보전할 수 있으므로 가치평가에서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1. 전문가의 발담 평가 주요 요소 가중치 조사결과

전문가	밀도·군락	주변 조화성	조성연대	원형보전성	돌담높이	돌담형태	합계
A-1	20	30	50				100
A-2	40	40		20			100
A-3	30		50			20	100
A-4			10	10		80	100
A-5	50	30				20	100
⋮	⋮	⋮	⋮	⋮	⋮	⋮	⋮
A-27			40	40		20	100
A-28	25	15		60			100
A-29	5			90		5	100
A-30			30	40		30	100
A-31	30			40		30	100
합계	720	770	385	760	10	455	3,100점
가중치 점유율	23.2	24.8	12.4	24.5	0.3	14.7	100.0

※ 가중치 점유율 : 각 전문가들의 평가요소 1,2,3순위 요소의 가중치 평균임.

Ⅲ. 가치평가 요소에 의한 사진 3등급 분류와 종합평가

1. 6가지 가치평가 요소에 의한 발담 사진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기

가. 조사개요 및 사진촬영방법 제시

제주도내 돌담 전문가 델파이 1차조사를 통해 발담의 가치 평가 요소와 가중치를 결정한 후, 이 과정에서 발담관련 전문가들은 1차로 주로 6가지 주요 요소(밀도·군락, 주변조화성, 조성연대, 원형보전성, 발담높이, 발담형태)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주요 요소 기준하에서 제주발담 관련 사진 100매를 보여주며, 각자의 주요 요소 기준으로 100매의 사진을 ‘좋다’라고 판단되면 A 등급, ‘나쁘다’고 판단되면 C 등급, 이 두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B 등급의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주도록 주문했다.

이때 제시된 제주발담사진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200곳을 촬영해서 유사한 사진을 제외한 100개를 대상으로 했다. 사진촬영은 16m~35m렌즈가 부착된 캐논 디지털카메라(기종:Canon1D)를 이용해서 도로에서 성인남성의 눈높이 기준(촬영각도는 24m~28m 범위내에서 경관여건에 맞게 조정)에서 이루어 졌다.

나. 발담 사진의 3등급(A, B, C)으로의 구분과 종합점수 산출

1) 종합평가 점수 산출 과정 개요

3등급 분류와 종합평가는 다음의 과정을 거치고 이루어졌다.

첫째, 제주도내 발담의 가치 평가 요소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주요평가요소를 3순위까지 선정하고, 각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를 파악한다.

둘째, 사전에 마련된 제주도 발담 사진 100매를 전문가가 제시한 3가지 주요 요소별로 사진을 3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셋째, 가치평가요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를 중심으로 평가요소들을 서열화하였으며, 각 전문가별로 각 사진에 대한 각 요소별 점수를 산출하고, 종합점수를 구했다.

넷째, 각 요소별로 전문가들의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평균점수를 구했다.

다섯째, 각 사진별로 전문가들의 종합점수를 구했다.

여섯째, 이를 통해 1순위 요소(주변조화성), 2순위 요소(원형보전성), 3순위 요소(밀도·군락)를 기준으로 가장 좋은 발답사진을 1번에서부터 100번째 사진까지 서열화하였다.

일곱째, 각각의 사진에 대한 전문가(31명)의 종합점수를 구했다.

2) 종합점수 산출 공식

단계 1. 발답 사진 한 장에 대한 전문가 개별 점수 환산 공식

단계 1-1) j 번째 사진 가치요소별 가중값(IWj : Individual Weighted value)

$$= j \text{ 번째 발답 가치요소 중요도}^4) \times j \text{ 번째 발답 가치요소 점수}^5)$$

단계 1-2) j 번째 사진 개별 종합점수(IMi : Individual Meaning)

$$= \frac{\sum_{i=1}^6 (IW_j)}{3} \quad (i : \text{발답가치 요소})$$

단계 2. j번째 사진 한 장에 대한 전문가 종합점수

$$\text{종합점수} = \frac{\sum_{n=1}^{31} IM_j}{31} \quad (j : \text{사진 번호, n:전문가})$$

3) 종합점수 산출

각 사진에 대한 전문가들의 각자의 선택에 의한 3요소에 대한 A, B, C 등급을 매기고, 여기에 점수를 3, 2, 1점으로 부여해 점수 변환하고, 중요도(가중치) 비율을 곱하여 각 요소별 가중치점수를 구했으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종합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2>의 첫 번째 자료를 예를 들어 해석을 하면, 첫번째 전문가(1)는 6개의 발답 가치요소 중에서 3가지의 요소와 가중치, 등급을 결정했는데 그

4) 전문가가 발답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주관적 중요도 값, $\Sigma(\text{발답 가치요소 중요도})=100$ 점

5) 발답 가치요소는 6가지로 원형보전성, 주변조화성, 밀도·군락, 조성연대, 발답높이, 발답형태임. 이를 3등급(A, B, C)으로 분류했으며, 각 등급에 따른 점수 A:B:C = 3점:2점:1점으로 부여함.

것은 밀도·군락(20, B등급), 주변조화성(30, A등급), 조성연대(50, A등급)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담 경관사진(1번)에 대해 첫 번째 전문가(1번)가 ‘밀도·군락 정도’에 대해 B등급으로 평가했으므로 이를 2로 변환하여, 해당 전문가가 제시하는 밀도·군락 중요도(20)를 곱하면 ‘밀도·군락 가중치점수’ (40)이 산출된다. ‘주변조화성’에 대해 A등급으로 평가했으므로 이를 3으로 변환하여, 해당 전문가가 제시하는 주변조화성 정도 중요도(30)를 곱하면 ‘주변조화성 가중치점수’ (90)가 산출된다. 그리고 ‘조성연대’에 대해 A등급으로 평가했으므로 이를 3으로 변환하여, 해당 전문가가 제시하는 조성연대 정도 중요도(50)를 곱하면 ‘조성연대 가중치점수’ (150)가 산출된다. 가중치 점수를 합산하여 3으로 나누어 종합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를 산출하면, 1번 사진에 대해 1번전문가는 93.3점을 부여하게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100매의 각 사진에 대해 31명의 ‘돌담관련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을 갖고 각각 종합평균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표 2. 발담경관(사진 1)에 대한 전문가 31인의 등급판정과 종합점수 산출

사진번호	전문가	등급							가중치							가중치 점수							종합 평균
		밀도·군락	주변조화성	조성연대	원형보전성	돌담높이	돌담형태	기타	밀도·군락	주변조화성	조성연대	원형보전성	돌담높이	돌담형태	기타	밀도·군락	주변조화성	조성연대	원형보전성	돌담높이	돌담형태	기타	
1	1	2	3	3					20	30	50					40	90	150	0	0	0	0	93.3
1	2	3	3		3				40	40		20				120	120	0	60	0	0	0	100.0
1	3	2		1			2		30		50			20		60	0	50	0	0	40	0	50.0
1	4			1	1		1				10	10		80		0	0	10	10	0	80	0	33.3
1	5	3	3				2		50	30				20		150	90	0	0	0	40	0	93.3
⋮	⋮	⋮	⋮	⋮	⋮	⋮	⋮	⋮	⋮	⋮	⋮	⋮	⋮	⋮	⋮	⋮	⋮	⋮	⋮	⋮	⋮	⋮	⋮
1	27			1	1		1				40	40		20		0	0	40	40	0	20	0	33.3
1	28	3	3		2				25	15		60				75	45	0	120	0	0	0	80.0
1	29	1			1		1		5			90		5		5	0	0	90	0	5	0	33.3
1	30			1	2		3				30	40		30		0	0	30	80	0	90	0	66.7
1	31	3			2		3		30			40		30		90	0	0	80	0	90	0	86.7

2. 가치평가 방법의 간편화와 등급표준 설정

가. 가치평가 요소의 간편화와 가중치 조정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제주발담의 가치평가의 6가지 요소를 그대로 정

책에 적용했을 때 평가가 복잡하므로 상위 3가지 요소로 축소해서 평가를 단순화·간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면 주변조화성과 원형보전성의 가중치는 25%에서 34%로, 다음으로 밀도·군락은 23%에서 32%로 가중치가 각각 상향 조정된다.

표 3. 가치평가 요소의 간편화(6가지→3요소)와 가중치 조정

전문가	밀도·군락	주변 조화성	원형보전성	합계
평균	32	34	34	100점

나. 3요소를 이용한 사진평가

간편화된 3요소를 이용한 사진평가 방법은 이미 6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각각 사진별 평가와 전문가별 평가와 종합점수가 사진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다음의 방법으로 행해졌다.

사진별 종합점수의 요소별 평균을 구한후(이미 이 과정은 6가지 평가요소시 산출된 것임), 3가지 주요요소 이외의 다른 요소들은 버리고 3가지 요소만의 합계를 구한다. 다음에는 3가지 요소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여기서는 71.6%의 역수를 가중치 합에 곱한다. 왜냐하면 6가지 요소기준 100점 환산방법에서 3가지 기준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수를 곱한 점수를 각각 더하고 이를 3으로 나누어 주면 100점으로 환산된 각 사진의 점수가 산출된다.

만약에 기존의 6가지 기준 평가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 전문가에게 간편화된 3가지 기준으로 다시 사진을 평가한다면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단계 3. 3요소⁶⁾만을 고려한 사진 한 장에 대한 전문가 개별 점수 환산 공식
 단계 3-1) j번째 사진 가중치 점수 합계(SIWj: Sum of Individual Weighted value)

$$= \text{원형보전성 중요도} \times \text{원형보전성 점수} + \text{주변조화성 중요도} \times \text{주변조화성 점수} + \text{밀도·군락 중요도} \times \text{밀도·군락 점수}$$

6) 3요소는 원형보전성, 주변조화성, 밀도·군락임.

단계 3-2) j번째 사진 한 장의 가중치 점수 합계(SW:Sum of Weighted

$$\text{value}) = \sum_{n=1}^{31} SIW_j$$

(j: 사진번호, n: 전문가)

$$\text{단계 3-3) j번째 사진 한 장에 대한 종합점수} = \frac{SIW_j}{SW1} * 100^{7)}$$

표 4. 각 사진별 종합평가 - 중요 3요소 기준

사진 번호	지역 구분	읍면	종합 순위	원형 보전성		주변 조화성		밀도·군락		합계	100점 환산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	곽지	애월	5	54	8	61	12	63	2	177	82.6
2	월정	구좌	6	59	4	65	6	51	23	176	81.9
3	용당	한경	55	45	38	45	50	36	57	126	58.6
4	한림	한림	69	36	67	38	69	31	75	105	48.8
5	용수	한경	37	45	38	51	35	43	39	140	64.9
⋮	⋮	⋮	⋮	⋮	⋮	⋮	⋮	⋮	⋮	⋮	⋮
96	사계	안덕	97	29	89	26	98	26	87	81	37.8
97	사계	안덕	95	26	98	33	83	24	97	84	39.0
98	고성	성산	86	31	83	33	83	28	85	92	42.6
99	용흥	애월	83	28	93	31	89	34	62	93	43.2
100	귀덕	한림	89	30	86	29	94	32	71	90	42.0

위의 과정을 통해 1순위 요소(원형보전성), 2순위 요소(주변조화성), 그리고 3순위 요소(밀도·군락)의 각각을 기준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발답 사진을 첫 번째 사진에서부터 100번째 사진까지 서열화하여 순위를 각각 정하였으며, 이 3가지 평가요소를 종합평가해서 그 순위를 정하였다<표 5>.

표 5. 평가요소 및 종합평가 우수사진 목록

순위	원형보전성		주변조화성		밀도·군락		종합 평가	
	사진번호	점수	사진번호	점수	사진번호	점수	사진번호	종합점수
1	25	64	26	72	29	65	25	88.9
2	26	63	29	70	1	63	26	88.6
3	34	61	25	69	48	60	29	88.6
4	2	59	15	68	13	59	34	85.8

7) SW1은 1순위 사진에 대한 3요소 가중값의 합, 1순위 사진 종합점수는 100점(기준값)

순위	원형보전성		주변조화성		밀도·군락		종합 평가	
	사진번호	점수	사진번호	점수	사진번호	점수	사진번호	종합점수
5	13	57	34	66	25	59	1	82.6
6	29	55	2	65	28	58	2	81.9
7	62	55	24	64	10	58	13	81.7
8	32	54	8	63	34	58	32	79.7
9	1	54	10	63	22	57	10	79.3
10	58	53	33	62	67	56	15	79.2

3. 현장 관측조사 평가용 기준사진 선정 및 판넬 작성

가. 선정 방법 및 선정 결과

관측조사시 평가 기준 사진의 선정방법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주요 3 요소별로 사진을 서열화한 후 상위 10%를 우수한 사진, 중간 10%를 보통 사진, 그리고 하위 10%를 불량 사진으로 선정하였다. 원형보전성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A등급은 1등에서 10등 수준(같은 점수는 모두 선택되기 때문에 보통 10개를 초과함)까지 약 10여개, B등급은 45등에서 55등 수준까지 약 11여개, C등급은 91등에서 100등까지의 10여개 등 총 30개 이상이 선정된다. 다음에는 A 등급으로 결정된 10여개의 사진 중에서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사진을 제외한 5개의 사진이 선택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사진 29, 1, 26, 13, 28번이 선정되었다.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B 등급은 사진 71, 23, 86, 6, 7번, C 등급은 사진 80, 96, 91, 99, 95번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주변조화성, 밀도·군락의 중요요소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고 이를 정리해서 나타낸 것이 <표 6>이다.

표 6. 평가요소별 기준 사진

원형보전성			주변조화성			밀도·군락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9	71	80	29	49	81	1	65	81
1	23	96	26	65	91	48	51	91
26	86	91	24	50	74	67	42	95
13	6	99	25	54	79	28	41	97
28	7	95	8	52	100	25	38	71

나. 관측조사평가용 판넬 작성

등급표준 사진을 3가지 요소인 밀도·군락, 주변조화성, 원형보전성의 각각에 대해서 A등급(5장), B등급(5장), C등급(5장)을 한 판넬에 넣어 ‘관측조사평가 기준 사진 판넬: 밀도·군락기준’, ‘관측조사평가 기준 사진 판넬: 주변조화성 기준’, ‘관측조사평가 기준 사진 판넬: 원형보전성 기준’을 각각 제작하였고, 원형보전성의 판넬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고 나머지는 고성보 등(2007a)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기준판넬은 현장 관측조사시 각각 중요 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다.

그림 2. 관측조사평가용 기준 사진 판넬 - 원형보전성(예)

A 등급	B 등급	C 등급
		
사진 29*	사진 71	사진 80
		
사진 1	사진 23	사진 96
		
사진 26	사진 86	사진 91

		
사진 13	사진 6	사진 99
		
사진 28	사진 7	사진 95

주) * 사진번호는 원래의 판넬제작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면제한으로 <표 5>의 평가결과를 일일이 사진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표시했음.

IV. 경관자원 평가시스템의 현장 적용과 응용

1. 발담 현장 관측조사 방법

발담 현장의 관측조사 과정은 첫째, 조사 포인트를 선정 둘째, 조사포인트에 대한 기초정보인 면적, 발담길이, GPS좌표 측정⁸⁾ 셋째, 관측평가 단계인데 3가지 요소별로 만들어진 기준 판넬과 현장의 경관을 비교해 각 부문에 대한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하는 3가지로 구분된다.

조사 포인트 선정은 제주도내 발담이 분포되어 있는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등 8개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표본구에서 200m 간격으로 6개 포인트를 선정하였다. 이때 1개의 포인트는 도로의 좌우를 기준으로 도로변에서 관찰되는 첫 번째 발과 두 번째 발을 포함한다. 따라서 한 개의 포인트에는 도로변 좌우의 두 개 필지 총 4개의 필지가 있고, 한 지역은 6개 포인트이므로 1개 지역당 관측대상이 되는 필지수는 24개 필지(=4개 필지/포인트 × 6개 포인트)가 되고, 지역은 8개 이므로 전체 관측 대상 필지수는 총 192개(=24필지/지역×8개지역)가 된다. 물론 관측 대상 필지에는 발이 아닌 경우라든가 첫 번째 발에 완전히 가려 두 번째 발이 보이지 않은 경우는 관측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장 조사 평가방법은 3가지의 기준판넬을 삼아, 현장에서 특정한 발담의 평가를 3개의 가치평가요소 중에 판넬의 어느 등급(열)에 해당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한 지역 발담의 원형보전성 정도가 원형보전성 기준판넬의 A등급(첫번째 열), B등급(두번째열), C등급(세번째 열)의 어떤 등급과 유사한가를 4명의 전문가⁹⁾가 합의하여 그 발담의 원형보전성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각 요소별로 A 등급은 3점, B등급은 2점, C 등급은 3점을 부여하고, 1차 전문가 31명이 합의한 중요요소별 가중치(주변조화성 34%, 원형보전성 34%, 밀도·군락 32%)를 곱하여 각 요소별 가중값을 구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합산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8) 각 필지 면적 측정, 발담의 길이, GPS 좌표는 제주도 지적 관리 프로그램인 ‘ATLAS 프로그램 1.20Version’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음.

9) 4명의 전문가 중에 1명만 전문가 델파이 응답자(31명)와 같고 나머지는 상이함.

2. 발담 현장 관측조사 결과

가. 관측조사 평가 : 제주시 애월읍 팍지리 지역사례

본 조사지역의 발의 총면적은 30,800㎡이며, 발담의 총길이는 3,353m이다. 본 지역의 관측조사 결과, A-2-1, A-4-1, A-5-1 포인트에서 3개 모든 부문 A등급을 받아 100점 환산점수가 10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A-6-2와 A-1-1이 주변조화성과 원형보전성에서 A등급을 받아 100점 환산점수 90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평균 점수는 82점으로 타 평가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7. 경관자원평가시스템의 현장 적용 : 제주시 애월읍 팍지리

조사 포인트	지번	면적 (㎡)	돌담 길이 (m)	등급평가			점수 변환			종합점수 (100점)
				주변 조화성	원형 보전성	밀도· 균락	주변 조화성	원형 보전성	밀도· 균락	
A-1-1	872-1	1,818	189	A(3)	A(3)	B(2)	103	103	63	90
	발이 아님									
A-1-2	1001-1	1,478	154	B(2)	B(2)	A(3)	69	69	95	77
	903-2	1,220	136	B(2)	B(2)	A(3)	69	69	95	77
⋮	⋮	⋮	⋮	⋮	⋮	⋮	⋮	⋮	⋮	⋮
	⋮	⋮	⋮	⋮	⋮	⋮	⋮	⋮	⋮	⋮
A-6-1	2437-1	653	115	B(2)	A(3)	A(3)	69	103	95	89
	2435	3,941	249	B(2)	A(3)	A(3)	69	103	95	89
A-6-2	1360	1,702	185	A(3)	A(3)	B(2)	103	103	63	90
	1362	1,121	129	A(3)	A(3)	B(2)	103	103	63	90
합계		30,800	3,353				1,541	2,089	1,764	1,798
평균							70	95	80	82

나. 관측조사 평가 종합

발담 현장 관측 조사결과, 종합 1순위 지역은 구좌읍 평대리 지역이며, 다음으로 조천읍 북촌리 일대, 애월읍 팍지리 일대, 애월읍 신엄리 일대, 한경면 용수리 일대 순으로 나타났다. 등급으로 분류하면 A등급(평대, 북촌, 팍지리 일대), B등급(신엄리, 용수리 일대), C등급(온평, 위미, 영락리 일대)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조화성’ 부분에서는 종합순위 순서와 유사하였으며, ‘원형보전성’ 부분에서는 ‘곽지리 일대’가 가장 우수하며, ‘밀도·군락’ 부분에서는 ‘평대리 일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각 표본구 관측조사 평가 종합

지 역	점수				순위			
	주변 조화성	원형 보전성	밀도· 군락	종합	종합	주변 조화성	원형 보전성	밀도· 군락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84	91	90	88.7	1	1	3	1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78	92	76	81.9	2	2	2	3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0	95	80	81.7	3	3	1	2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53	77	68	66.0	4	4	4	4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50	38	39	42.5	5	5	5	5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34	34	32	33.3	6	6	6	6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4	34	32	33.3	7	7	7	7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34	34	32	33.3	8	8	8	8

3. 경관자원평가시스템의 현장관측결과의 활용

경관자원평가시스템에 의한 현장 관측(평가)결과와 최근 고성보 등(2007b)의 비시장재화 평가법에 의해서 추정된 제주밭담의 1m당 평균 단가 3,000원¹⁰⁾인 절대적 가치평가액과 결합시키면 개별 농가당 또는 지역별로 직불제 금액을 상이하게 추정하여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가령, 현장 밭담에 대한 관측결과 얻은 100점 환산 총점을 가중치로 하여 밭담의 가치 단가에 이를 곱하면 그 밭담에 주어지는 실질지불단가를 구할 수 있다. 구좌읍 평대리 지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제주밭담 평균단가가 1m당 3,000원이고, 100점환산 점수가 88.7점이므로, 이지역 밭담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단가의 하나의 예로서 $3,000\text{원} \times 0.887 = 2,661\text{원}$ 이 적용될 수 있고 여기에 그 밭담의 총길이를 곱하면, 그 밭담으로 인해 지불받는 직불금 총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주밭담의 1m당 가치 3,000원은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실질단가는 평균가치를 기준으로

10) 표준편차는 511원, 95% 신뢰구간은 2000원 ~4000원으로 나타났음.

해서 만들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확보된 직불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주발담의 1m 당 가치의 95% 신뢰구간인 2000원/m과 4,000원/m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기준 단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3,000원 이상의 가치단가를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3,000원 이하의 가치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경관자원인 제주도 발담의 평가시스템 개발과정과 현장 적용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돌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치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결정하는 전문가 DELPHI 1차 조사이다. 2단계는 가치평가요소에 의한 경관자원인 발담사진에 대한 등급 평가인 전문가 DELPHI 2차 조사이다. 3단계는 현실 정책 적용성을 감안해 가치평가요소의 축소와 가중치의 재조정작업인 전문가 DELPHI 조사결과를 활용한 분석 작업이다. 4단계는 축소된 경관자원의 가치평가요소를 기준으로 100매 발담사진을 재평가후 등급표준을 설정해 현장 평가시 이용될 3가지 평가용 표준 판넬을 제작한다. 5단계는 현장 관측조사(평가) 단계로서 3가지 평가용 기준판넬을 이용해 각 조사지역의 요소별·종합평가 단계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제주발담이라는 경관자원의 가치평가요소는 ‘주변조화성(24.8%)’, ‘원형보전성(24.5%)’, ‘밀도·균락(23.2%)’ 등이 큰 차이 없이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발담형태(14.7%), 조성연대(12.4%)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적용성을 감안해 가치평가요소의 간편화와 가중치를 조정하면, ‘주변조화성(34%)’, ‘원형보전성(34%)’, ‘밀도·균락(32%)’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경관자원평가시스템을 제주발담 현장에 적용한 결과, 종합 1순위 지역은 구좌읍 평대리 일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조천읍 북촌리 일대, 애월읍 깎지리 일대, 애월읍 신엄리 일대, 한경면 용수리 일대 순으로 나타났다. 등급으로 분류하면 A등급(평대, 북촌, 깎지리 일대), B등급(신엄

리, 용수리 일대), C등급(온평, 위미, 영락리 일대)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관자원평가시스템은 상이한 지역의 제주도 발담의 객관적인 등급판정을 통해서 등급차이에 따른 경관보전직불제의 차별적인 직불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경관자원평가시스템에 의해서 나타난 등급판정결과와 경관자원의 가치평가기법 예를 들면, 이선선택형 가치평가법(Dichotomous-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DC CVM)에 의해서 산출된 절대적인 가치와 연계시키면 상이한 지역에 존재하는 유사한 개별 경관자원에 대한 가치를 차별적으로 추정해 낼 수 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의 경관자원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해 내고, 등급에 따른 보조금 차별화를 통해 제주발담과 같은 경관자원에 대한 선별적 중장기 보전대책을 세우는데 정책적 평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시장재화 평가법에 의해서 추정된 제주발담의 1m당 평균 단가가 3000원이고, 특정 발담지역의 경관자원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점수가 88.7점인 경우 이 지역에 적용될수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실질단가의 하나의 예로서 $3000\text{원} \times 0.887 = 2,661\text{원}$ 이 적용될 수 있고 여기에 그 발담의 총길이를 곱하면, 그 발담으로 인해 지불받는 평균적인 의미에서의 직불금 총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의 한계로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발담과 같은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보전직불제의 단가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관자원의 가치에 의해서 산정될 수도 있지만, 그 발담을 유지,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개념으로 접근할 수 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축된 경관자원평가시스템은 제주발담이라는 경관에 기초한 기준사진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돌담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한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한 평가가 일반주민과 관광객의 평가와 일치하는지, 기준사진의 평가와 합의된 평가결과간의 상호 비교를 통한 검증의 필요성은 존재하는데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1. 고성보 등(2007a), 『제주도 농촌지역내 돌담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농촌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농림부.
2. 고성보 등(2007b),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감귤산업의 영향분석 및 중장기 발전전략』, 제주도.
3. 김광임 등(2005),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 이상영 등(2004),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농촌자원개발연구소.
5. 이상영(2006), “제주 전통돌담의 가치평가 및 보전방안”, 『농촌계획』 12(2), 한국농촌계획학회, pp.27-35.
6. 이상영(2007), “제주 전통돌담의 유지보수에 관한 의식조사”, 『농촌계획』 13(1), 한국농촌계획학회, pp.33-40.
7. 이영경·이병인·한상열(2006), “전통사찰의 이용 및 보존가치에 대한 경제 평가”, 『한국조경학회지』 제34권 5호, 한국조경학회, pp.84-99.
8. 이주희·한상열·김학운(2001),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을 이용한 천연기념물 보존을 위한 소비자 지불의사금액의 추정”,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5권 제1호, 한국산림휴양학회, pp.45-49.
9. 한상열(2000), “지리산 반달곰의 보존가치의 평가를 위한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의 적용”, 『산림경제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산림경제학회, pp.1-10
10. 한상열(2003), “산림휴양가치 평가를 위한 이단계 이선선택형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의 적용”,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7권 제1호, 한국산림휴양학회, pp.1-6.
11. 허주녕·김태균·변상희(2000), ‘Logit 및 Turnbull 모형을 이용한 복숭아 품질인증의 소비자가치 평가’, 『농업경영·정책연구』 제27권 3집, pp.91-102.
12. Duffield, J. W. and D. A. Patterson(1991), “Inference and Optimal Design for a Welfare Measure in Dichotomous-Choice Contingent Valuation”, Land Economics 67, pp. 225-239.

13. Habb T. C., and K. E. McConnell(1997), "Referendum Models and Negative Willingness to Pay: Alternative Solu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32, pp.251-270.
14. Hanemann, W. M.(1984),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e Economics 66, pp. 332-341.
15. Turnbull, B.(1976), "The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 with Arbitrarily Grouped, Censored Truncated Data", J. Roy. Statist. Soc. Ser. B 38, pp.290-295.

주제발표

문화경관으로서의 ‘제주 돌담밭’ 의 가치

강 성 기

(제주대학교 특별연구원)

문화경관으로서의 ‘제주 돌담밭’의 가치

강 성 기

(제주대학교 특별연구원)

1. 서 론

오늘날 제주의 자연환경은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2002년에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에는 세계자연유산, 2010년에는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제주는 전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도 풍요로운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이라는 자연조건은 제주민들이 농업활동을 하는데 그다지 좋지 못한 환경을 제공해왔다. 한반도와는 다른 제주의 토양¹¹⁾조건은 자갈 함량이 많고, 경작토의 깊이도 얕아 농업활동에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었다(고광민, 2004). 여기에 강한 바람은 여타의 섬과 비슷하겠지만 특히, 제주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까닭에 여름철 태풍의 길목 역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민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돌담밭을 조성하였다.

中村和郎 외(2001)는 문화경관을 특정지역에서의 현상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혹은 내부적·외부적 위치관계에 의해 인간의 삶 속에서 주변공간과는 확실히 식별되며 일정한 특징을 갖는 지표의 한 구획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문화경관은 인간이 자연을 접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의미체로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생존해 온 자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돌담밭은 제주민이 삶 속에서 한반도와는 식별되는 일정한 특징이 존재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 속에서 제주

11) 제주의 토양은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현무암 풍화토)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화산회토가 제주 토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이 살아 온 자취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유네스코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뛰어난 문화경관들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의 돌담밭은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 경작지에서 인간이 자연에 적응해 온 자취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두 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 돌담밭은 농업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보화·도시화로 인해 농업이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는커녕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여 훼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경관으로서 제주 돌담밭이 제주민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하루빨리 퍼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화경관으로서 제주 돌담밭의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 돌담밭은 다양한 가치가 있으나 여기서는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 교육적 가치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경관으로서 돌담밭에 대한 가치를 살펴본다면 앞으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돌담밭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제주 돌담밭의 가치

1) 제주 돌담밭의 역사적 가치

제주의 돌담밭은 오래 전부터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색적인 경관일 수밖에 없었다. 제주출신이 아니면서도 자신의 삶 중 일정 기간을 제주에 거주한 사람들은 그들의 기록에 빠지지 않고 제주 돌담밭의 경관을 남기곤 했다. 여기서는 과거의 문헌을 중심으로 제주 돌담밭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필자가 확인 가능한 돌담밭과 관련된 문헌으로는 총 10개가 있었다. 이 문헌들을 저자의 신분으로 분류해 보면 한반도에서 제주로 온 관리, 제주의 지식인층, 외국 지리학자의 글이 있었다. 돌담밭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는 1530년에 이행과 홍언필이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있고, 가장 최근의 문헌으로는 1954년에 담수계가 기록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가 있다.

〈표 1〉은 각 문헌별로 돌담밭의 유래, 축조과정, 돌담의 기능 중 어떤 측면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1〉 문헌에 나타난 돌담밭의 기록 내용 분석

관련문헌	유래	축조 과정	돌담의 기능		
			소유지 경계	우마 출입방지	토양과 작물 보호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행 〈李荇〉 · 홍언필 〈洪彦弼〉, 1530)	○		○		
南溟小乘 (임제 〈林悌〉, 1577-78)				○	
南槎錄 (김상헌 〈金尙憲〉, 1601)		○			
耽羅誌 (이원진 〈李元鎭〉, 1653)	○		○		
南遷錄 (김성구 〈金聲久〉, 1676)		○		○	
南槎日錄 (이증 〈李增〉, 1679)				○	
南宦博物 (이형상 〈李衡祥〉, 1704)	○		○	○	
耽羅誌草本 (이원조 〈李源祚〉, 19세기 중반)	○	○		○	
KOREA (헤르만 라우텐자흐 〈Hermann Lautensach〉, 1945)		○		○	○
增補耽羅誌 (담수계 〈淡水契〉, 1954)	○		○	○	○

돌담밭에 대한 최고(最古)의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동문감(東文鑑)』에 ‘그 땅에 돌이 많고 건조하여 본래 논은 없고 오직 보리·콩·조가 생산된다. 그 밭이 예전에는 경계 독이 없어서 강하고 사나운 집에서 날마다 차츰차츰 먹어 들어가므로 백성들이 괴롭게 여기었다. 김구(金丘)가 관관이 되었을 때에 백성의 고통 되는 바를 물어서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드니 백성들이 편하게 여기었다』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돌담밭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로, 1530년 기록이라면 조선시대이지만 고려시대 때부터의 기록인 ‘동문감’의 내용을 재인용하고 있어 실제로 고려시대의 제주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돌담밭은 1234년에서 1239년까지 제주에 재직한 김구관관이라는 관리에 의해 조성되었다. 결론적으로 돌담밭은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부터 조성되었다는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돌담밭을 조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돌담밭은 밭의 경계가 없어 괴로워하던 백성들의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그 동안 경작지 한 편에 모아 두었던¹²⁾ 돌들이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시기 전에도 제주의 경작지에는 수많은 돌들로 인해서 돌담을 쌓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김구관관 시기에 와서 돌담밭이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되었을 수도 있다(김종석, 1998).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주의 돌담밭이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록으로 볼 때 제주의 돌담밭이 1200년대 초부터 조성되었냐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김일우(2008)는 당시 돌담밭의 출현이 제주농업에 있어 농작법의 전환이 있던 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돌담밭이 출현하기 전에는 백성들이 그다지 자신의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경계 표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제주농업이 휴경(休耕)농작법일 때는 땅을 한번 갈아먹고 나서 지력이 소모되어 더 갈아먹지 못한 채 방치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경농작법 시기에 백성들은 언제 다시 그 장소에서 농사를 지을지 알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밭에 경계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휴한(休閑)농작법이 도입되면서 백성들은 땅을 한번 갈아먹은 후 1·2년 또는 3·5년 내지를 정기적으

12) 이를 제주에서는 ‘머들’이라고 한다.

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기 소유의 경작지에 대한 경계표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구는 이 휴한농작법인 도입될 시기에 제주에서 관관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김일우는 한반도 안에서도 다양한 원인으로 지역별로 농작법 단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의 돌담밭은 당시의 농업활동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돌담밭에 대한 기록에 대한 의미는 이후 문헌들과는 남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명소승(南溟小乘)에는 『섬의 토질은 모두 자갈밭이며, 한 뼘기 비옥한 땅도 찾아볼 수 없다. -중략- 산에는 짐승, 들에는 가축이 있다. 천백 마리씩 무리를 이루어 다니는 까닭에 밭을 일구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담을 둘러야 한다. 사람이 사는 집 또한 으레 돌을 쌓아 높다란 담장을 만들어서 이에 돌담으로 골목이 이루어진다』 하였다.

남사록(南槎錄)에는 『당초 사람이 없었을 때, 섬의 별판은 모두 이 적석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 후 점점 갈고 개간하는 땅이 되어 밭을 넓혔으나, 멀리까지 개척하지 못하고 다만 밭머리에 그 돌을 둘러쌓게 된 것이다』 하였다.

남천록(南遷錄)에는 『밭과 들판을 바라보니 모든 집이 유지처럼 담벽이 종횡되어 있다. 당초 사람이 없을 때는 모두 어지럽게 돌을 쌓아서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는데, 후에 차차 땅을 논이나 밭으로 일구면서 밭두둑과 이랑으로 개척하므로 멀리까지 전답을 만들지 못하고 단지 밭머리에다 돌을 모아 쌓은 것이 담장을 이루게 된다. 무덤이 밭 속에 많이 있고 무덤 사면에 돌을 쌓았는데 이는 소와 말이 들어가서 밟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하였다.

남사일록(南槎日錄)에는 『돌밭에는 독이 연결되지 않았고, 밭 끝 사방에 주먹만한 돌들을 둘러쌓아 소와 말이 함부로 들어올까 봐 막고 있다. -중략- 내가 대정 지경을 보니 논밭이 많고, 돌을 모아 담장을 하였는데, 다만 한계를 한 것만이 아니고 오로지 소, 말이 곡식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다. 다만 전답에만 담장을 쌓은 게 아니라 인가는 모두 돌로 담장을 쌓아 결코 나무 울타리는 없었다. 아마도 돌을 모으는 게 장작을 얻는 것

보다 쉽기 때문이다』하였다.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에는 『땅에는 난석이 많다. 산과 평지를 논할 것이 돌이 많고 흙이 적다,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모두 땅속으로 스며들어 흘러서 말라버린다. 밭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분묘를 만드는 자는 반드시 돌을 모아 담을 쌓아서 우마의 출입을 막았다』하였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는 『탐라(耽羅)는 〈담나라〉의 이두음(吏讀音) 같기도 생각하리만큼 제주는 어디를 가든지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가옥·전담·무덤 등 돌레의 경계선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본도 삼다(三多)의 하나인 돌을 처치하는 방법도 되며, 겸하여 방풍방축(防風放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이른바 일거양득이라 생각된다』하였다.

남명소승, 남사록, 남천록, 남사일록, 탐라지초본, 증보탐라지 등 6개의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돌담밭에 대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으로 돌담이 방축(放畜)기능을 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한반도와는 상이한 제주의 목축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에서는 마소를 농가에서 가둬서 길렀지만, 제주에서는 마소를 목장이나 들에 풀어 놓아서 길렀다(고광민, 2004). 즉, 제주에서는 우마를 방목(放牧)하였기 때문에 밭마다 담을 쌓지 않으면 우마로 인해 농사를 망칠 위험이 높았다. 그래서 제주민들은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돌로 담을 쌓았던 것이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원(몽골)에 의해 제주가 본격적인 목축지대로 변하게 된 13세기 이후부터 돌담의 방축기능은 한층 강화되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는 돌담밭이 조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농업이 기계화가 된 현재까지도 여전히 제주민들은 경작지를 개간할 때마다 산출되는 대부분의 돌들을 경작지 주변에 처리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과거 가축의 힘을 빌려 경작지를 개간해야 했던 시기에 제주민들이 경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돌들에 대한 처리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끊임없이 이어지는 돌담밭에 대한 역사적 시간을 느끼게 해준다. 현재까지도 제주민들은 농업활동 과정에서 돌담밭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산출되는 돌들을 궁여지책으로 경작지 주변에 쌓아놓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제주민들이 돌담밭 안에 쌓은 돌무더기 중에는 암반이 노출되어 농업활동을 할 수 없는 공간을 이용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사진 1).

마지막으로 증보탐라지에는 돌담이 방축과 함께 방풍(防風)의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제주의 바람은 돌과 함께 제주문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바람은 제주농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여름철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과 겨울철에 부는 북서계절풍의 강도는 한반도에서도 가장 강한 바람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제주 농업이 주로 보리와 조 등의 식량작물을 재배할 시기의 돌담은 오늘날 감자, 무, 당근



〈사진 1〉 돌담밭 안 돌무더기(구좌읍 하도리)

등의 작물 재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에도 농민들은 바람의 영향에 따라 농작물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이며, 돌담이 농작물의 방풍에 도움을 된다고 한다.

코리아(KOREA)에서는 『대부분 경지로 된 하부아열대식생지대에서 투수성이 큰 용암은 갈색토로 덮여 있는데, 이 지표면에는 도처에 아직도 풍화되지 않은 암석들이 잔존한다. 이러한 돌들은 수백 년 동안의 힘든 작업을 통하여 제거된 상태이며, 작은 밭 주위에 1~2m 높이의 담으로 올려 쌓여졌다. 그러한 담은 길 양편에도 늘어서 있다. 담들은 방목되는 가축이 밭에 침입하는 것을 막으며, 폭풍성의 바람으로부터 토지와 작물을 보호한다』 하였다.

제주의 돌담밭은 외국인에게도 이색적인 경관이었으며, 특히 지리학자라면 한층 더 관심이 가는 경관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헤르만 라우텐자흐는 독일의 유명한 지리학자이다. 그가 1933년 9개월 동안 조선 곳곳을 누비면서 정리한 글이 바로 ‘코리아’이다. ‘코리아’에 기록된 돌담밭의 내용은 다른 문헌에 비해서 제주의 기후, 지질, 토양 등에 대하여 학문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글 또한 앞선 문헌들에서도 언급한 돌담밭의 조성과정이나 돌담의 기능을 주로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점은 ‘바람으로부터 토지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토양은 주로 비와 바람에 의해 침식현상이 일어난다. 더욱이 제주의 토양은 대부분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쉽게 침식현상

이 일어나며, 이 때 돌담은 작물만 보호할 뿐만 아니라 토양까지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의 경작지를 살펴보면 간혹 돌담밭 중간에 소유지 경계와는 별도의 돌담을 쌓아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돌담이 바로 토양의 침식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해 놓은 돌담이다(사진 2).



〈사진 2〉 경작지 안에 쌓은 돌담(구좌읍 김녕리)

이 외에도 탐라지(耽羅誌)는 제주관아에서 내려오는 ‘주기’를 대부분 취했고, 남한박물(南宦博物)은 탐라지를 대부분 참고하였기 때문에 두 문헌에서는 돌담밭이 유래와 경계기능이 앞의 문헌과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본 돌담밭의 역사적 가치로는 첫째로, 돌담밭의 유래에서는 제주의 자연에 적응하여 살아 온 백성들의 고충이 담겨있으며, 1200년대 제주의 농업의 변화 모습을 조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로, 과거 돌담밭의 조성과정이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돌담밭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밭 주변 돌담의 기능은 밭의 소유지 경계, 우마의 출입방지, 토양과 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돌담의 기능들은 한반도와는 다른 제주의 목축문화와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1

2) 제주 돌담밭의 경관적 가치

경관은 눈에 보이는 자연 및 인공풍경 모두를 포함하며 토지, 동식물 생태계,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내포하고 있다(임승빈, 1991). 또한 경관은 인간의 심적 현상으로서 동적 변화성을 가지며 지극히 주관적·상대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유현석·김시현·주용준, 2002). 따라서 경관은 대

상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가치판단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 돌담밭은 경관적 측면에서 선과 면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돌담밭에는 제주민들이 척박한 자연환경에 적응해 온 모습이 담겨있다. 돌담은 재배작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는 상징적인 의미의 선과 면의 이미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강동언 외(2008)는 생활공간에 대한 의사소통의 개념에서 기하학적인 선의 심상이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로 파생되었으며, 돌담밭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내면의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징으로 도달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돌담밭을 바라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우수성과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제주 돌담밭의 형태는 대부분 비정형적이다. 선을 이루고 있는 돌담은 직선과 곡선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돌담의 직선과 곡선으로서의



〈그림 3〉 비행기에서 찍은 돌담밭 (제주시 용담동)

조화는 높은 지형이나 상공에서 볼 때 더욱 잘 느낄 수 있다(그림 3). 이렇게 곡선의 돌담은 과거 제주민들이 경작지로 개간할 당시 모습을 떠올려 보게 한다. 즉, 제주의 끊임없는 돌담밭은 제주의 땅이라는 캔버스에 검은 색, 녹색, 갈색 등의 유화로 그려 놓은 한 폭의 풍경화처럼 느껴진다.

다음으로는 돌담밭이 연출하는 선과 면의 조화인데 이는 돌담과 재배작물을 통해 표출된다. 우선 제주에는 대표적인 경관작물로 유채와 코스모스가 있다. 봄에는 검은색의 돌담과 노란색의 유채가, 가을에는 돌담과 코스모스가 한 쌍을 이루어 뛰어난 경관미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겨울에는 돌담에 날아와 쌓인 눈과 조화를 이루어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 하다(그림 4).

일반적으로 제주 돌담밭에는 현무암으로 된 돌담이 존재하여 돌 표면이 거칠고 다공질이지만 간혹 하천과 해안가의 특정 지역에서는 먹돌을 이용하여 돌담을 쌓은 곳도 존재하는데 이는 제주 돌담밭의 색다른 경관미를 느끼게 해준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 주변 돌담밭 등이 있다.



〈그림 4〉 겨울철 눈과 밭돌담 모습 (애월읍 광지리)

제주에는 사구지형에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한림읍 금능리와 구좌읍 김녕리 등이 있다. 이 지역에서는 검은색의 돌담밭과 모래밭이 다른 지역의 돌담밭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구지형에서 돌담밭은 제주민들이 척박한 농업환경에 적응해 온 모습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한다(그림 5).



〈그림 5〉 사구지형의 돌담밭 모습
(한림읍 금능리)

3) 제주 돌담밭의 생태적 가치

Forman(2000)은 경관의 가장자리가 서식지, 여과장치, 통행로, 공급원, 소멸지 등 다양한 기능을 보여준다고 한다. 여기서는 다양한 생물 서식지인 돌담밭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 돌담밭의 생태적 가치로는 생물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다. 돌담밭 중에는 간혹 혼작하는 곳을 볼 수 있는데, 혼작은 같은 밭 안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심어 가꾸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 밭을 나누어 파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똑같은 비율로 파종하지 않는다. 제주에서는 혼작 시 주가 되는 작물에 대한 말은 없으나 부가 되는 작물을 ‘머드레’라고 한다. ‘머드레’는 주작물과 파종되는 경우도 있고, 주 작물 주위에 파종하기도 한다(고광민, 2004). 이렇게 제주에서



〈그림 6〉 돌담밭의 주작물(당근)과 머드레(옥수수)
(구좌읍 세화리)

주 작물 주위에 ‘머드레’가 존재하는 이유는 밭 주변이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돌담밭 주위에는 다양한 ‘머드레’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수, 들깨, 옥수수 등이 있다(그림 6). 이 점은 제주민들이 경작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숨은 의지가 담겨 있다.

제주에는 다종다양한 돌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경작지의 돌담은 제주의 돌문화 중에서도 산출된 돌을 거의 가공하지 않고 쌓아 올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담에는 바람구멍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 바람구멍은 단지 바람의 파풍(破風)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의 이동통로가 되기도 한다. 즉, 생물들이 이곳저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돌담 주변에는 미기후가 조성되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돌담 주변인 미기후 조건 하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4) 문화적 가치

제주의 경작지에 쌓은 돌담은 그 형태가 다양하다. 여기서는 돌담의 여러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제주의 문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돌담밭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한다.

제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밭에서 산출된 잔돌들을 겹쳐 쌓아 올리다 보니 폭이 넓은 돌담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이 돌담 위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데 이런 돌담을 제주에서는 ‘жат질¹³⁾’이라고 한다(그림 7). 마을에 жат질이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경작과정에서 불필요한 돌들이 많이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жат질은 도로에 인접한 밭 소유자와 그렇지 못한 소유자 간의 관계에서 이웃을 배려한 공동체 문화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도로에 인접한 밭 소유자는 밭담이



〈사진 7〉 돌담밭의 жат질(한림읍 귀덕리)

13) ‘жат’은 보통 돌로 쌓은 성이라는 뜻이고, ‘질’은 제주어로 길을 뜻한다.

두꺼워질수록 경작지 축소라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도로를 끼고 있지 못한 밭 소유자에게는 농산물의 반출이나 농기구나 비료 등을 반입하는 데에 불편함을 크게 해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사진 8〉 잡곶담(애월읍 광지리)

잡곶담은 하단부에 일정한 높이까지 작은 돌로 쌓은 다음, 그 위에 큰 돌로 쌓은 돌담을 말한다(사진 8).

제주민들이 하단부에 작은 돌을 쌓고 상단부에 큰 돌을 쌓은 이유는 경작지에서 산출된 다양한 크기의 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즉, 상단부와 하단부의 돌의 크기가 바뀐다면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돌담을 쌓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 잡곶담 하나에도 제주민들이 지혜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경작지에 쌓인 돌담의 높이는 다양하다. 필자가 확인한 것 중 돌담의 최고 높이는 약 2m 50cm 정도였으며, 최저 높이의 돌담은 30cm도 되지 않는다. 돌담은 바람으로부터 농작물과 토양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농사일에 지쳐 잠깐 동안에 쉬거나, 식사 시 농민들의 바람막이도 되었다. 즉, 돌담 주변은 농민들의 쉼터로서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제주의 농업시대에는 농민들이 돌담에 의지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돌담의 높이가 낮은 대표적인 지역인 대정읍 신도리에서는 농민들이 식사 시 바람을 막을 만한 높이의 돌담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5) 제주 돌담밭의 교육적 가치

제주 돌담밭은 다양한 교과목의 교육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성기(2010)는 초등 사회과 교육 자료로서 제주 돌담밭을 사회교과 내 지역화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적용해 보았다. 또한 2007년 개정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는 '문화 경관의 다양성'이라는 단원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교감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주 돌담밭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현동걸(2011)은 제주 돌담이 강한 바람에서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특징을 중심으로 돌담이 강한 바람에 견디는 힘의 원인에 대해서 과학교과자료로 구성해 보았다.

또한 돌담밭의 돌은 다양한 암석¹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의 지역에 따른 지질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학습자료가 될 수도 있다.

제주 돌담밭은 교과자료 외에도 제주지역 학생들을 위한 향토교육자료로 교재화한다면 제주의 지역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3. 결 론

본고에서 살펴본 문화경관으로서의 제주 돌담밭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담밭의 역사적 가치로는 돌담밭의 유래에서 당시 농업환경을 조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담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제주의 문화를 이해할 있다. 둘째, 돌담밭의 경관적 가치로는 돌담이라는 선과 경작지라는 면의 조화미, 계절별 펼쳐지는 다양한 경관미, 돌의 재질과 지형에 따라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셋째, 돌담밭의 생태적 가치로는 돌담밭 주변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우선 ‘머드레’라는 부가되는 작물을 혼작하고 있고, 돌담 주변의 미기후가 만들어져 이 환경에 어울리는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넷째, 돌담밭의 문화적 가치로는 잣질은 제주민들이 이웃을 배려한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었고, 잣굽담에는 다양한 크기의 돌을 효과적으로 처리한 흔적을 알 수 있었으며, 돌담밭 경계를 따라 돌담을 의지한 제주민들의 쉼터로서의 장소를 엿볼 수 있었다. 다섯째, 돌담밭의 교육적 가치로는 사회과와 지리교육에서는 지역을 이해하는 자료가 되며, 과학교육에서는 돌담이 바람에 견디는 힘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교과자료 외에 향토교육자료로서 지역을 이해하는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주 돌담밭은 제주의 자연에 적응해 온 제주민들의 지혜가 담겨 있으며,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화경관이다. 현재의

14) 돌담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대부분 현무암이지만 신양리에는 퇴적암, 산방산에는 조면암으로 된 돌담도 존재하고 있다.

시각으로 보면 제주 돌담밭은 그 기능이 다소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제주 농업환경에서는 존재적 가치로서 확고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제주의 돌담밭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서 위치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범위를 넘어 체계적이고, 다학문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제주민들에게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가치를 널리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南溟小乘』〈林悌〉
『南槎錄』〈金尙憲〉
『南槎日錄』〈李增〉
『南遷錄』〈金聲久〉
『南宦博物』〈李衡祥〉
『新增東國輿地勝覽』〈李荇 · 洪彦弼〉
『耽羅誌』〈李元鎮〉
『耽羅誌草本』〈李源祚〉
『增補耽羅誌』〈淡水契〉

강동언·박성진·손일삼, 2008, “전통 제주돌담의 문화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우도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

강성기, 2010, “초등 사회과 교육에서의 비교 지역 관점을 위한 문화경관 이해의 유용성 -제주 돌담경관과 유럽 보카주 경관의 사례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과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강성기, 2011, “문화경관으로서의 제주 밭담의 의미 탐색”,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pp.223-233.

고광민,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김일우, 2008,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김종석, 1998,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문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유현석·김시현·주용준, 2002, 자연경관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영, 2006, “제주 전통돌담의 가치평가 및 보전 방안”,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2(2), pp.27-35.

임승빈, 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현동걸, 2011, “제주 전통돌담이 강한 바람에 견디는 힘의 원인에 대한 연구” 2011년 초등교사 대상 환경교육 지도자과정 직무연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pp.211-235.

Lautensach, H., 1988, KOREA: A Geography Based on the Author's Travel and Literature, translated by Katherine and Eckart Dege, Springer-Verlag, Berlin.

Richard T. T. Forman, 홍선기 · 김동엽 옮김, 2000, 토지모자이크 - 지역 및 경관생태학, 성균관대출판부.

中村和郎·石井英也·手塚 章, 정 암 · 이용일 · 성춘자 옮김, 2001, 지역과 경관, 선학사.

토론자료

제주 돌문화의 보존 및 활용방안

강 경 희
(제주대학교 강사)

1. 제주 돌문화의 중요성

제주 돌문화는 정신적·물질적 문화유산의 총체이다. 제주도는 ‘돌의 고장’이라 할 만큼 온통 돌로 둘러싸인 석다(石多)의 섬이다. 이러한 돌은 삶의 환경을 척박하게 만든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생활 속의 돌문화는 제주사람들의 생활문화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지닌 중요한 문화요소로서 물질적·정신적 문화유산을 생성해 왔다. 제주의 자연적 물질 요소의 돌은 제주사람들의 삶과 결부되어 하나의 창조적 문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문화자원으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주 돌문화는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2006년 100대 민족문화상징물(문화관광부)로 돌하르방과 돌담이 선정되었다. 또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는 99가지 제주문화상징물에 돌하르방, 동자석, 산담, 잣성, 환해장성, 당(堂) 등 돌 관련 상징물을 포함시켰으며, 2008년에는 이러한 상징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돌문화를 제주문화 10대 상징물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최근에는 제주 ‘돌담 밭’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어업유산자원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돌이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의 하나로, 제주 돌문화가 제주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문화자원을 생성·유지·발전시켜 왔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돌문화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민속, 경관 등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원의 요소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써, 바로 그것이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이끌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문화자원으로서의 돌문화의 속성 및 유형 분류

제주의 돌문화는 민족문화상징물로서 중요한 평가를 받았고, 아울러 제주문화상징물로서 제주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돌문화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돌로 만들어진 다양한 생활도구 및 생산도구, 각종 석상, 돌담, 관방유적 등 개별적인 문화요소에 대한 역사적·민속적 연구는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문화요소를 포괄하는 제주 돌문화가 한국문화의 보편성 속에 제주문화의 특수성을 나타내고, 제주사람들의 생활문화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체계적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한 적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실 제주의 돌문화는 너무나 일상적·상식화된 생활문화이었기에 관심 밖의 대상이었고, 우리는 돌문화의 자연성, 역사성, 문화성, 경관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망각한 채 살아왔다. 현대 생활에서 이미 돌을 소재로 한 생활 및 생산도구 등 생활 측면에서의 돌이용은 사라지고 있지만, 제주의 석상, 즉 돌하르방 및 동자석 등은 관광 상품으로 새롭게 재가공 되어 제주를 알리는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문화의 시대에 제주 돌문화가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어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주 돌문화의 원형발굴과 보존이 시급한 시점임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제주 돌문화의 원형발굴을 위해서는 돌문화의 지리성·역사성·경제성·사회성·민속성·경관성 등의 측면을 바탕으로 문화자원의 다양한 속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복합적인 돌문화의 양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가. 돌문화의 지리성: 돌문화의 자연적 지리성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측면에서 자연지리 및 생활환경에 따른 돌문화의 형성 과정과 배경, 지리적 분포와 특성 등을 분석하는데 유효하다. 예를 들어, 제주의 자연마을은 등고선에 따라 생활환경의 차이를 보인다. 해안 마을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문화와 중산간 마을의 농경과 목축문

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공동체는 상호보완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자연마을별 혹은 위치공간에 따른 독창적인 공동체 문화를 생성·발전시켜 왔다. 그러므로 돌문화의 특성에는 제주사람들이 자연적 생활조건을 어떻게 이용하고 대처했는지에 대한 차별적인 지식 체계가 숨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 돌문화의 역사성: 돌문화의 역사적 측면에서는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신의 수단으로, 경계의 표식 수단으로 다양하게 돌을 이용하며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왔던 돌의 역사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돌문화 속에는 옛 선인들의 정신과 지혜가 깃들어 있어서 제주문화의 생명력을 파악 가능할 것이다.

다. 돌문화의 경제성: 제주사람들은 농업, 어업, 목축업, 수공업 등의 경제활동에 따라 돌로 다양한 생산도구를 만들어 이용해 왔다. 생산적 측면에서의 돌이용은 다른 측면에서 보다 더욱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냈다. 예를 들어, 제주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바닷가의 빌레(너럭바위)를 이용하여 소금을 만들어 먹었고, 원담(돌그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다. 이러한 생산용 돌문화는 마을 공동의 유산이었다. 돌문화의 경제성에서는 생업과 생산을 위한 돌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이용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생활양상과 개개인의 생활상을 토대로 인간과 돌의 물질문화와의 상호작용을 고찰할 수 있다.

라. 돌문화의 사회성: 돌문화의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놀이문화 차원에서의 돌문화의 이용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제주사람들은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편리한 도구와 기기가 발달한 오늘날과는 달리, 마을공동체 내에서 연자방아와 같은 돌 도구를 함께 이용하며 마을공동체를 유지해 왔고, 정낭과 같이 집안에 사람이 부재 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왔다. 또한 놀이기구가 다양하

지 않았던 시절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돌을 소재로 놀이기구를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돌문화의 사회성에서는 마을공동체 유지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로서의 돌문화의 양상을 밝힐 수 있다.

마. 돌문화의 민속성: 돌문화의 민속적 측면은 생활적·신앙적 관점에서 돌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고찰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대 생활 속에서 신앙 대상의 돌 관련 문화유산은 많이 남아있다. 이는 아직도 제주사람들의 민속신앙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변화에 따른 생활변화와 의식구조의 변화로 인해 돌을 소재로 한 민속신앙이 점차 소멸되기 이전에 돌 자원의 분포와 특성을 고찰하여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라. 돌문화의 경관성: 돌문화의 경관적 측면은 돌을 소재로 만들어진 시설들, 즉 마을별로 현존하는 산담, 올레, 밭담, 잣담 등 돌의 여러 기능적 가치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돌의 전통미적, 심미적, 경관미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돌문화의 경관적 가치가 추가됨으로써 돌문화가 훨씬 더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돌문화의 속성을 고려하고, 지역·마을공동체 공간과 개인적 생활·생산 활동 공간으로 구분하여 돌의 기능별 이용에 따른 돌문화 원형자원의 유형을 분류해 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마을공동체 공간과 개인적 생활·생산 공간으로 구분한 것은 앞으로 돌문화의 원형을 찾아내고 그것을 문화자원으로서 활용할 경우 공동체 문화와 개별적 문화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활용방안을 제시 가능하리라는 추찰에서 비롯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문화의 속성을 보면, 지역·마을공동체 측면에서는 돌문화의 역사성과 사회성이, 개인적 생활과 생산 활동 측면에서는 돌문화의 민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 돌문화 원형자원의 속성과 유형 분류

공간 구분	기능별	돌 자원 명칭	돌문화의 속성
지 역 · 마 을 공 동 체	식생활	용천수, 우물	지리성, 사회성
	주생활	돌방아(연자매), 보리통	사회성, 민속성
	생산·생업	원담, 포구, 소금빌레, 촌물통	경제성
		불턱	사회성
	신앙	돌미륵, 방사탑, 분향당, 포제단, 석탑, 석상	민속성, 역사성
	통신	방문석	사회성
		도대불(등명대), 봉수, 연대	역사성
	오락	듬돌, 땃돌, 돌싸움 놀이, 끈(곤질고누)	사회성
	기념비	비석거리	역사성
	방어·경계	성담, 진성, 환해장성	역사성, 경관성
		돌하르방	역사성
		밭담, 잣성	경제성, 경관성
		산담, 마을 경계 돌담	민속성, 경관성
개 인 적 생 활 · 생 산 활 동	의생활	다듬잇돌, 속돌	민속성
	식생활	돌혹, 장항굽(장독대), 돌화로, 돌방아, 소줏돌, 기름틀(석제품 봉애기), 솟덕, 돌ㄱ레(멧돌), 돌절구, 약ㄱ레, 우영담	민속성
	주생활	물팡(팡돌), 물확(돌확), 주춧돌, 축담, 구들돌, 등경돌, 돌등잔, 굴묵, 봉덕, 놀굽, 디딜팡	민속성
		정주석	민속성, 사회성
		통시	민속성, 지리성
	생산·생업	덩드렁, 돌테, 구시, 곶돌, 봉돌, 돛도구리	민속성, 경제성
	신앙	칠성돌, 동자석, 문인석, 망주석, 상돌, 비석	민속성
	기호품	부싯돌	민속성
	경계	울담, 올레	경관성

(자료: 김종석, 1998,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문화-생활용구, 방어시설 및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 이윤형·고광민, 2006, 『제주의 돌문화』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3. 돌문화의 보존 및 활용방안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문화산업이 국가 혹은 지역의 경제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하여 문화가 곧 경제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아울러 최근 문화관광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문화관광은 그 지방의 독특한 생활문화 혹은 전통문화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광에서도 지역문화에 기초한 변화된 문화관광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제까지 관심 밖의 대상이었던 너무나 일상적·상식적인 지역의 일이나 행사 등의 생활문화나 전통문화가 새롭게 부각되어 관광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사람들의 삶에 바탕을 둔 제주의 돌문화는 무한한 경쟁력을 제시 가능한 문화적·경제적 자산으로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제주 고유문화의 세계화를 창출하는데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으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몇 가지 돌문화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겠다.

1) 제주도 전역 돌문화 현황 조사 및 원형 분포 지도 작성

제주도는 돌문화의 보고(寶庫)라 할 만큼 섬 전체에 돌문화 관련 자원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돌문화는 사회변화와 각종 대규모 개발에 의해 급속도로 훼손되거나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제주사람들의 무관심과 행정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더 이상 훼손되거나 소멸되기 전에 제주도 전역에 걸쳐 돌문화의 원형발굴을 위한 현황 조사, 즉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돌문화 원형자원 분포 지도를 작성함과 동시에 현재 남아 있는 돌문화 자원은 그 보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 학습의 장으로서 돌문화 생활유적의 복원 및 보존

선인들 또는 동시대(同時代)의 제주사람들이 이용했던 많은 돌문화가 섬 전체에 아직도 널려 있다. 예를 들어, 발담·산담·올레·돌하르방·본향당·방사탑·각종 생활도구 등 돌을 소재로 한 생활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다. 돌

문화 전수 조사를 통하여 훼손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돌문화 자원을 복원 및 보전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빨리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돌문화 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마을 혹은 유관기관 중심으로 보전을 강구하면서 학생, 일반인, 관광객 등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돌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인식시켜야 한다.

3) 돌문화를 활용한 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돌문화는 제주사람들이 오랜 세월 돌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산된 정신적·물질적 문화유산의 총체로 그 자체가 가장 제주적인 훌륭한 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돌문화에는 옛 제주 선인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생활문화와 정신문화는 현재와 미래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즉, 돌문화가 제주사람들의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적 연대를 밀접히 연계하여 제주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원으로서, 결국 제주만의 특색 있는 돌문화의 고유성이 문화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칭 “우리 선조들은 돌문화를 어떻게 이용했을까?”라는 대주제로, 돌문화의 특성과 제주선조들의 생활 문화사를 스토리텔링 하여 교육활동과 체험활동에 활용한다.

4) 돌문화를 활용한 문화 축제 개발

전북 익산시에서는 4대 축제의 하나로 ‘전국돌문화축제(2012년 제15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히려 돌은 제주도의 특색을 나타내는 삼다(三多) 중 하나인데, 돌이라면 제주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축제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에서도 돌문화 축제를 개발하여 선인들의 생활문화를 재인식하고 지역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재 제주도 내에 돌 관련 관광시설, 즉 제주돌문화공원, 돌하르방공원, 제주돌마을, 돌미로공원, 올레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곳과 연계한 돌문화 축제를 기획한다면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방문객들에게도 관심을 불러 일으켜 돌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가장 제주다운 생활문화를 통한 문화관광화를

추진함으로써 제주의 경제적 부가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사계절 돌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마을 만들기와 연계

돌문화의 지질 및 인문환경을 활용한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365일 제주 돌문화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돌담과 들꽃의 어울림, 돌문화 콘서트, 돌문화 시화전, 돌문화 사진전, 돌문화 생활문화 동화 구연, 돌문화를 이용한 생활민구 만들기, 우리 마을 돌문화를 찾아서, 설경과 돌문화 등을 비롯하여 주변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시사철 돌문화 이야기를 전하도록 기획한다. 동시에 이를 마을만들기와 관광활동과 연계시켜 이색적인 지질 생태관광 또는 생활체험관광의 모티브로 활용한다면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 가능할 것이다.

6) 돌문화를 활용한 마을의 친환경적 이미지 구축

돌은 자연적 소재로서 그 자체가 친환경적 요소이다. 중산간마을 혹은 해안마을에서는 마을에 널려 있는 돌문화를 활용하여 마을 이미지를 친환경적으로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청정농업 및 청정수산업, 청정목축업 등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마을의 경제적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7) 돌문화 맞춤형 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 지역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앞으로 눈높이에 맞춘 ‘돌문화 교육자료’를 제작함과 동시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각 기관에 배포하여 돌문화의 지질환경과 인문환경(지리·역사·생활문화 등)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돌문화를 이용해 온 지역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동시에 돌문화의 보전가치를 깊게 인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 전역에 산재해 있는 돌문화 지키기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8) 돌문화 관광책자 및 관광지도 제작

제주도 전역에 걸쳐 산재해 있는 돌문화 관광책자 및 관광지도를 만들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돌문화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존하는 돌 소재의 문화유산을 개별적인 ‘점(占)’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총체적인 ‘선(線)’의 문화유산으로 연결하여 관광지도를 만들어 본다면 ‘흑룡만리의 섬’을 그릴 수 있고 돌문화의 가치를 더더욱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주의 돌문화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근간이 될 것이며, 돌문화가 발달된 제주만의 독특한 고유문화를 재인식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제주인과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밝힘과 동시에 문화관광자원화로 지역문화, 생활문화의 세계화를 구축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9) 제주돌문화 홍보자료 및 웹 사이트 개발

돌문화와 관련된 볼거리(예를 들어, 문화재를 지정된 선사유적지, 돌하르방, 방사탑, 연대 등) 탐방을 돕는 책자와 안내지도 등 제주 돌문화 홍보자료 및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국내외에 제주 돌문화의 귀중한 가치를 알리고,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다 손쉽게 돌문화 관련 볼거리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문화의 귀중한 가치를 인식할 때, 제주 돌문화의 영구적 보존 가치를 공론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제주 ‘돌담 밭’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어업유산자원 등재를 위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 돌문화의 중요성과 그 보존 가치를 깊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10) 제주 돌문화 총서 발간

제주 돌문화를 소개하는 책들이 몇 권 출판되어 있으나, 돌하르방이나 돌담, 동자석 등에 한정되어 있다. 앞에서 돌문화의 속성과 유형을 분류한 것처럼 제주사람들의 삶과 연계된 하나하나의 소재를 중심으로 한 돌문화

총서를 발간하여 돌의 고장인 제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 생활문화의 복원과 보존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추진시키는 데도 소중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11) 돌문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돌문화는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돌문화에 관한 연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돌문화에 대한 문제가 몇몇 학자에 의해 제기되었고, 본격적인 작업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학문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 돌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끊임없는 연구 및 발표, 토론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불어 세계적인 돌문화 관련 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세계의 돌문화를 배울 기회를 마련하고, 동시에 제주 돌문화의 높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므로 매해 돌문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통한 강도 높은 공론의 장을 형성하면서 체계적으로 제주의 돌문화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희, 2008, 「제주돌문화 리뷰」, 『제주 돌문화 자원의 가치 재조명과 활용방안』, 공동워크샵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 제주학연구자모임.
- 2012, 「제주 돌문화의 원형발굴과 미래적 가치」, 『제주학 산책』, 제주학연구자모임.
- 고성보 · 강정효 · 최용복 · 양진철, 2009, 『제주의 돌담-가치평가와 문화관광자원화 방안』,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종석, 1998,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문화-생활용구, 방어시설 및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희 · 고광민, 2006,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 제주학연구자모임, 2008, 『제주 돌문화 자원의 가치 재조명과 활용방안』, 공동워크샵 자료집.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 제주학연구자모임, 2009, 『제주 돌문화 자원의 가치 재인식과 활용방안』, 국제심포지엄 세미나 자료집.

제주 돌담 밭에 대한 정책은 있는가?

강 정 효

(제주대학교 강사)

제주 돌담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리고는 올해 내에 세계농업기구(FAO) 세계농어업유산자원 등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미 지난달 정부의 세계농어업유산자원 등재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제주를 방문, 제주 돌담밭 현장 보전 실태 및 등재신청에 따른 자문이 있었다고도 한다.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쁨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고생한 행정당국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축하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으론 아쉬움과 우려가 교차한다. 몇 가지 그 이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제주도 돌담의 가치와 소중함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는다. 자랑 같지만 지난 2000년 제가 신문에 돌문화에 대해 20여회 연재한 후 화산섬 돌이야기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게 돌담 관련 단행본으로는 처음이다. 그리고는 2000년대 중반 돌담을 보호하자는 얘기, 심지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자는 얘기가 간혹 나오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속작업은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 1월 돌담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될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돌담의 길이를 2만2108km로 소개하고 있다. 이 길이가 어떻게 산정된 수치인지 볼 필요가 있다. 2007년 농림부의 연구과제인 ‘제주도 농촌지역내 돌담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농촌경관보전 직불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여기에서 처음 언급된 자료로 제주도 돌담의 총 길이를 3만6355km, 이 중 밭담은 2만2108km로 추산했었다. 이는 6개의 표본지역 1평방km 평균 길이인 40.796km를 제주도 총 면적과 경지면적으로 곱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자료에는 읍면의 시가지 면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대추정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정밀한 측측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묻고자 한다. 그 이후 어떠한 작업이 이

뤄졌는지. 당시 본인도 조사에 참여했기에 그 내용을 아는데, 당시 조사지역, 즉 표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6개 지역은 신촌, 고산, 대정, 애월, 성산, 남원 등으로 신촌은 이미 경지정리가 이뤄진 지역이다. 대정도 부분적으로나마 경지 정리된 곳이 포함되고 있다. 남원의 경우 과수원으로 개간되며 훼손이 급속도로 진행된 지역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지역이 모두 일주도로변이라는 것이다. 중산간 지역으로 확장한 경우 그 오차는 엄청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농어업유산자원으로 등재하겠다는 당국에는 이와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있다. 혹시 등재 자체에만 너무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왜 이런 우려를 갖느냐 하면 과거 여러 차례 보아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다. 2002년 지정된 이후 제대로 된 관리정책을 갖고, 계획에 따라 보전과 활용을 해왔는지를. 제가 알기에는 성대한 기념식 이후에 심포지엄 두어 차례 개최한 게 전부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도 제주도에 유치한 이후 기념식과 세미나 한 차례가 전부였고.

이제 보호측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일주도로든 중산간 도로든 어디를 가나 도로변의 돌담은 이미 원형을 잃었다. 도로 공사 후 돌담을 쌓는 과정에서 예전 방식이 아닌 쉽게 말해 자연석이 아닌 다듬은 돌을 갖고 쌓았다는 얘기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 돌담 쌓기가 쉽고, 인건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효율성만 따진다면 벽돌로 쌓으면 더 낫지 아니한가.

5년전 애월읍 지역에 작업실을 신축한 후 돌담을 쌓을 때 일부러 나이든 할아버지들을 구해다 쌓은 적이 있었는데, 멀리 구좌읍에서 모셔온 이들 할아버지들의 하루 일당이 15만원이었다. 지금은 돌담을 제대로 쌓는 할아버지들을 구하기도 힘들다. 소중한 자원, 계승할 자산이라 말할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주의 돌담 책자 결론 부분에서도 언급됐지만, 돌담축제를 통한 석공연합회 조직, 돌담 전수학교 개설 등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농어업유산자원으로 간다고 하니 많은 분

들이 문화재 지정 이후의 규제를 떠올리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경관직불제를 시행해 더 이상의 훼손을 막는 한편 경관이 우수한 일정 지역을 매입해 별도의 문화재로 지정, 원형을 보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시작은 경작하는 농민, 나아가 제주도민들에게 돌담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주 돌담의 문화경관가치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제주의 문화경관과 제주돌담밭의 경관 특성

1-1 제주의 문화경관

아무리 단순한 건물이라도 그것은 물체나 구조체 이상의 것이며, 그것들은 하나의 제도이며, 기본적인 문화적 현상인 것이다.

주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생활 그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주거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는 건축의 기원에 있어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시적 혹은 토착적 형태로서의 기본적인 건축물이다. 그것들은 인간으로서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사물을 행하는 특수한 방법을 구현하고 있는 인위적으로 설계된 것이고, 또한 모든 가능한 대안중에서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 환경은 하나의 특정한 대중문화(건조환경 양식=스타일)를 형성하게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이것은 의복이나 음식과 같은 대중문화(생활양식=스타일)와도 같은 것이다.

어떠한 양식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가치관, 표준, 기준 등이 요구되는데, 그것들은 도식에 의하여 구현된다. 결국 인조환경의 양식은 이와 같은 도식과 그것들이 가지는 질서(秩序, 공간적 질서)가 반영됨으로서 부호화)되어진 문화형태(양식=스타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¹⁾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우리

1) 민중서림 편집부(1995), 민중국어사전, 민중서림, p923

들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 속에 스며들어 갔을 때 진정한 문화경관²⁾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문화경관 형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제주가 가진 독특한 제주의 땅에 대한 이해와 제주사람들의 오랜 시간을 통해 습득하였던 생활 공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주적인 스케일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즉 「땅」 「공간」 「스케일」에 있는 것이다.

- 땅(Land)

화산섬이라는 제주 특유의 지질학적 특성과 제주의 땅이 가진 지형과 지세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그림1).

<그림 1> 땅이 지닌 다양한 조건들은 당당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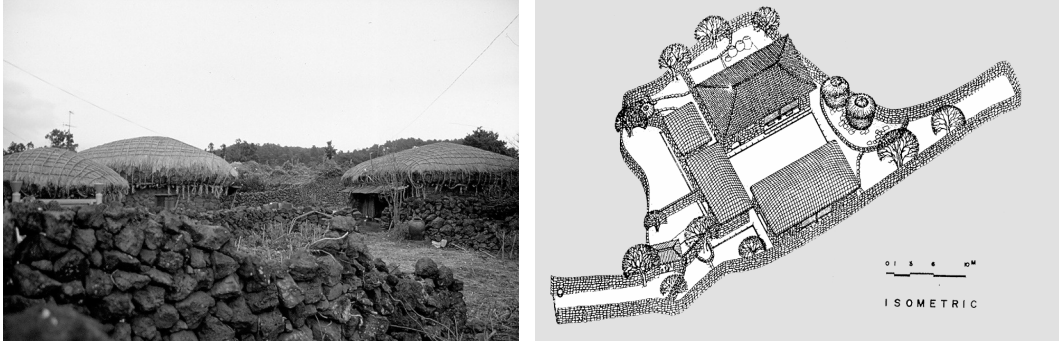
-공간(Space)

제주 사람들이 오랜 경험과 철학적 사상이 녹아 스며들어 형성된 제주전

2) 자연경관에 인공을 가하여 이룩한 경작(耕作), 광공업, 교통, 도시 등을 의미한다. 민중서림 편집부(1995), 민중국어사전, 민중서림, p923

통초가에 대한 이해, 즉 형태적 미학뿐만 아니라 공간적 미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그림2).

<그림 2> 돌담과 출입구, 개구부에 의해 열리고 닫힘의 공간이 만들어진다.(초가조감도



출처: 제주도(1987), 제주건축의 향토성 개념정립과 보급확대방안 연구)

-스케일(Scale)

기본적으로 제주의 건축물은 육지의 그것에 비해 크지 않다. 이것은 바람과의 대응에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원풍경이 되는 한라산과 오름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조화로움 경관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함 관계이다(그림3).

<그림 3>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놓여지는 초가크기와 돌담의 높이는 제주적인 스케일감이다.



1-2 제주돌담밭의 경관 특성

기본적으로 제주의 독특한 땅과 공간, 그리고 스케일감이 문화경관의 큰 틀을 형성하는 요소들이지만 더욱 세련되고 독특한 제주의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것은 역시 제주의 돌이다. 제주는 돌의 세계이다. 그로 그럴것이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분출된 용암은 굳어 돌이 되고 이 돌들은 모진 비바람에 의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제주 땅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제주의 땅, 제주의 돌은 제주의 역사이자 제주의 문화이다. 삶의 모든 것이 땅과의 관계이자 돌과의 관계를 갖고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제주의 초가와 올레가 그렇고 산담과 밭담이 그렇다,

돌담밭이 갖는 경관가치의 가장 큰 특징은 외형적 아름다움의 가치뿐만 아니라 돌담밭을 형성해온 제주사람들의 공동체의식 역시 중요한 문화경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라 할수 있을 것이다. 즉 돌담은 토지나 가옥의 경계를 정하는 의미를 넘어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문화적 산물이기도 하다. 돌담 쌓기에는 특별한 장인(匠人)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장인의 손을 거치지 않더라도 돌과 돌이 잘 맞물리도록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며 혹 무너져 보수가 필요하여도 간단히 복구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구조의 돌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능숙하게 쌓기 위해선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오랜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바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한 빈틈을 만들면서도 돌과 돌이 맞물리도록 쌓아야만 하는 지극히 경험으로 축적된 숙련도인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용하는 돌도 큰 돌뿐만 아니라 작은 돌, 밋밋한 돌, 모난 돌, 둥글넓적한 돌들이 모두 필요하다. 각각의 돌들이 제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큰 돌만을 사용했을 경우, 담 자체가 무게는 있지만 돌과 돌을 이어주는 이음새의 역할을 하는 돌이 없게 된다. 또한 바람이 와 닿는 면적이 넓어져 불리하다.

이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작은 돌을 큰 돌과 더불어 사용했을 경우 작은 돌 하나하나의 바람에 견디기 어렵지만, 이들이 서로 이음새 역할을 해 견고한 담으로서 새롭게 탄생될 수 있다. 또 돌과 돌만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돌담 전체가 무너지는 피해를 주지 않

게 된다. 설사 무너진다고 하여도 그 부분만을 쉽게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도 편리하다.

이런 점에서 돌과 돌만으로 짜여진 제주의 돌담은 일종의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 돌담에는 작은 힘 하나하나를 모아 자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고스란히 스며든 것이다.

갈등과 반목, 대립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상 최대의 폭풍에도 무너져 내리지 않은 제주민가의 돌담은 또 다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2.제주돌담밭의 경관 가치

제주에는 삼다(三多, 돌 바람, 여자)라고 불려질 정도로 돌이 많다. 땅이 척박하고 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돌을 이용하여 밭의 경계를 구분지었던 것을 밭담이라고 한다.

돌담이 제주에 나타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제주의 중요한 풍경 중의 하나가 된 돌담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고종 때부터라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는 경작지의 경계가 불분명해 이웃의 경작지를 침범하기도 하고 지방 세력가들이 백성의 토지를 빼앗기도 하는 등 토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고종 때부터 제주에 고위관료들이 파견돼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고려 고종 21년부터 고종 27년까지 재임했던 김 구 제주판관이 지방의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토지소유의 경계로 돌을 이용해 담을 쌓도록 했다고 한다. 돌담을 쌓은 후부터 토지경계의 분쟁이 없어지고 방목했던 소와 말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줄었다. 특히 제주 특유의 바람을 막아내는 역할까지 했던 것이다.

앞서 제주의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언급하였던 「땅」 「공간」 「스케일」의 요소중 「땅」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주의 땅은 오랜 시간의 흐름속에 모질고 거칠 비바라에 의해 다듬어진 형상이며 여기에 제주사람들의 다양하고 지혜로운 삶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삶의 흔적들이 바로 돌담밭이며 돌담밭은 아름

다운 제주의 땅위에 수놓은 인간의 그림이라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밭담은 서로 완만한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형에 맞게 계단형식으로 조성된 경우도 있는 등 독특하며 오묘하고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제주의 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그림4).

〈그림 4〉 끝없이 이어지는 밭담



〈그림 5〉 파울 클레, 큰길과 작은길



특히 길을 주제로 한 파울클레의 작품 「큰 길과 작은 길」(그림5)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에 의한 만들어진 면은 다양한 크기의 조합으로 인해 조화된 질서를 가지면서 다양한 색채로 인해 예술성을 갖게 된다. 제주의 밭담은 땅의 경계를 짓는 선으로 존재하기만 땅을 모자이크화하여 계절의 변화를 담아내는 새로운 풍경이기도 하다(그림6).

〈그림 6〉가파도의 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밭담은 소유의 경계선이자 땅을 모자이크화하여 계절의 변화를 담아내는 새로운 풍경이기도 하다.



3. 제주돌밭담의 보호방안

FAO에 제주의 밭담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주농업경관을 대표하는 밭담의 보전과 관리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독특한 제주의 농업환경과 농업경관을 형성하는 제주의 밭담에 대한 가치평가와 보호, 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제주도 전체를 시야에 넣고 보호와 관리하는 방안과 비교적 원형이 남았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와 관리 현실에서 알수 있듯이 가치평가와 지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며 방대한 지역을 지정한 후에는 그에 대한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의 침해문제와 관리를 위한 예산 부담도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도 전체를 보호 및 관리의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특정지역을 보호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된다.

3-1. 밭담의 문화경관 보전지역의 선정기준

문화경관보전지역 선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기준에 근거하여 적절한 대상기준을 선정하도록 한다.

첫째, 밭담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둘째, 주변지역에 다양한 생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특히 꽃자왈지역과의 관련성)

셋째, 현행법에 의해 관리 경관 관리되고 있거나 경관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넷째,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지역,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역과 연계될수 있는 지역

다섯째, 보전과 아울러 향후 활용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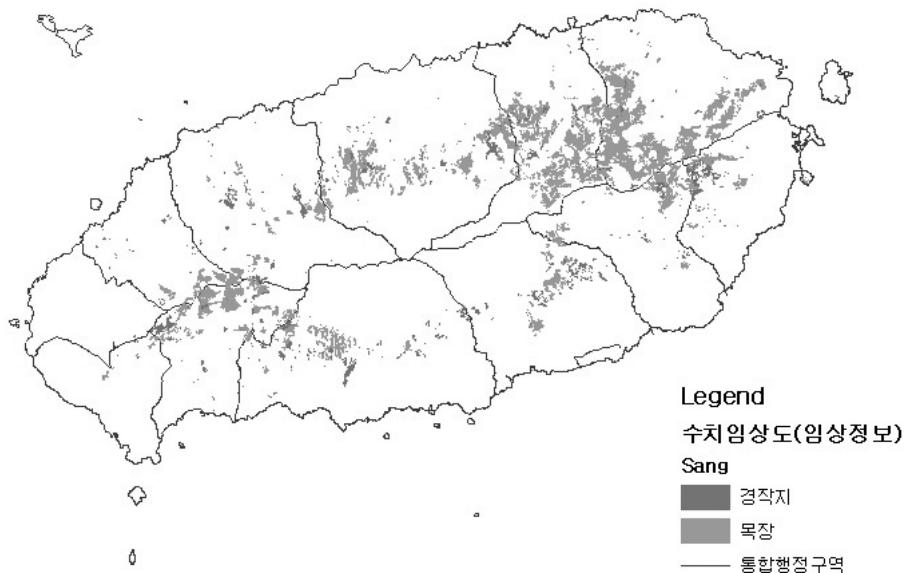
3-2. 밭담의 문화경관보전지역 선정

상기 기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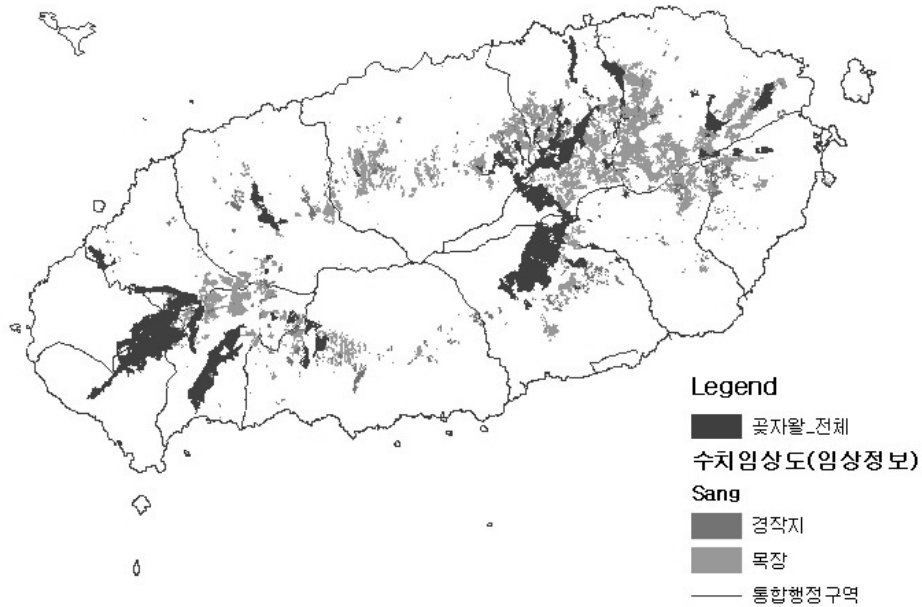
다고 생각되며 분석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ArcGIS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밭담조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경작지를 중심으로 분포현황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자료는 산림청이 제공하고 있는 수치임상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포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북동쪽지역과 남서쪽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7). 특히 이들 분포지역은 제주도의 생태보고(生態寶庫)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자왈지역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곳자왈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곳자왈 분포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完편하게 일치하기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곳자왈과 경작지와의 관련성은 상당 부분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조천-선흘 곳자왈지역, 구좌-성산곳자왈 지역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있음을 알수 있다(그림8).

〈그림 7〉 경작지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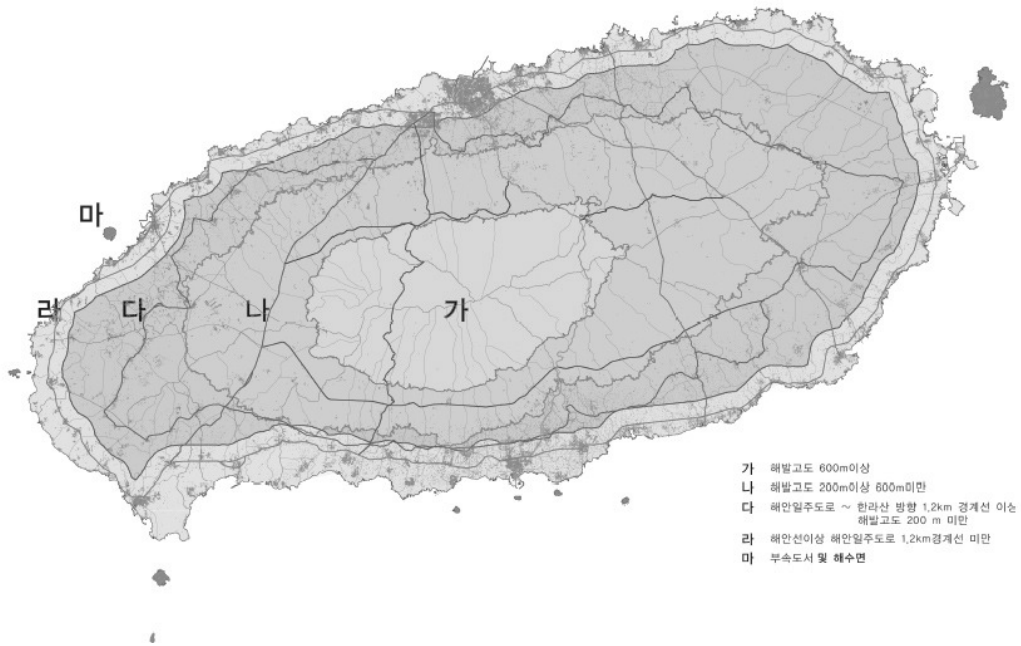


〈그림 8〉 꽃자왈과 경작지 분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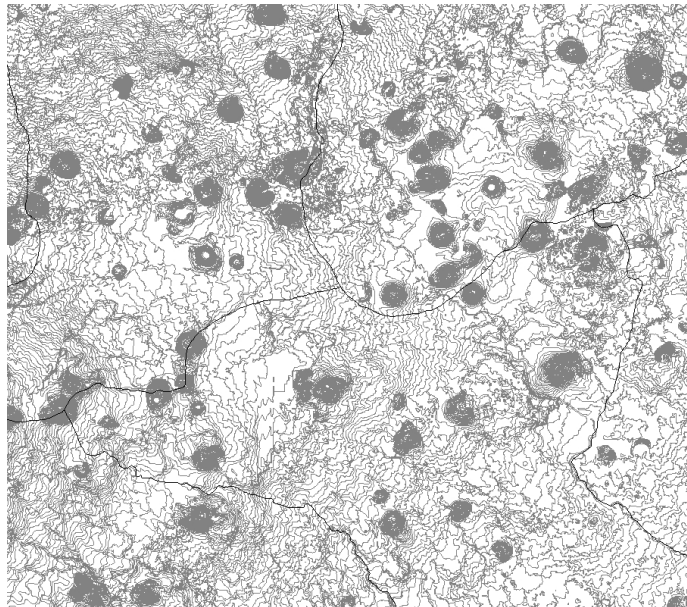


현행법에 의해 경관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경관단위 나지역, 경관단위 다지역으로 중산간과 시가지지역의 경관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조천-선홍 꽃자왈지역, 구좌-성산꽃자왈 지역 일대는 특정경관관리단위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지역으로 주요도로변, 동부지역 오름군락(그림10), 세계자연유산지구,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이다(그림9).

〈그림 9〉 경관단위 구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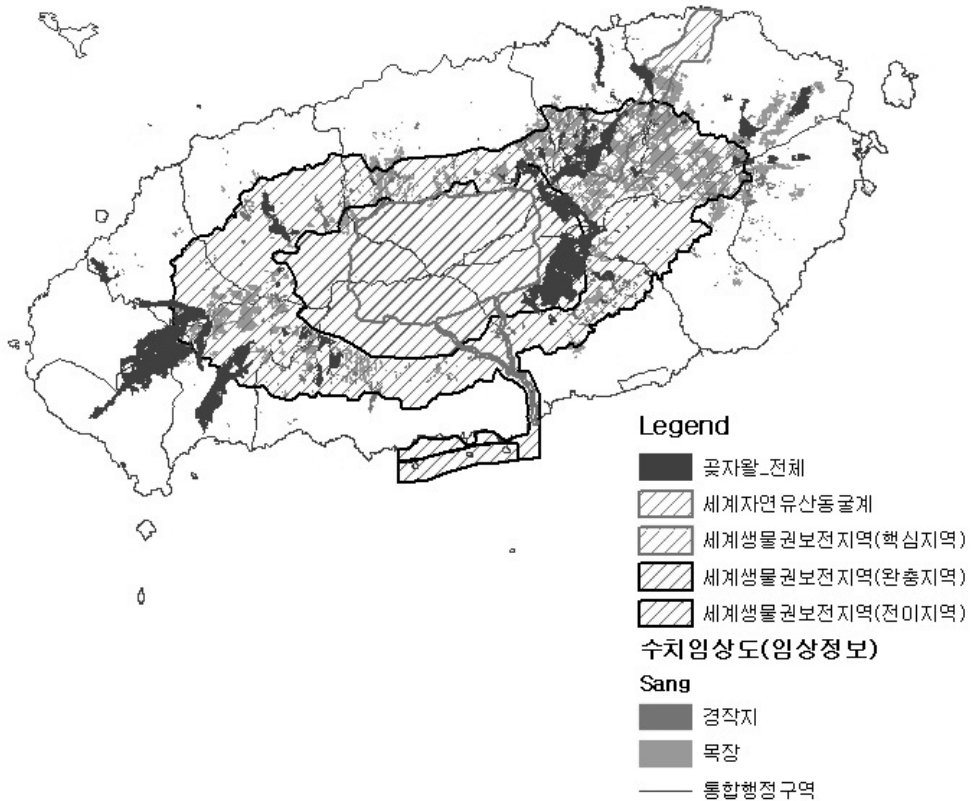


〈그림 10〉 동부지역의 오름군락 현황



특정경관관리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지구와의 관련성은 경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경작지, 꽃자왈과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다. 이를 위해 세계자연유산지역,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지역의 분포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세계자연유산 동굴계와 세계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과 전이지역과 상당부분 겹쳐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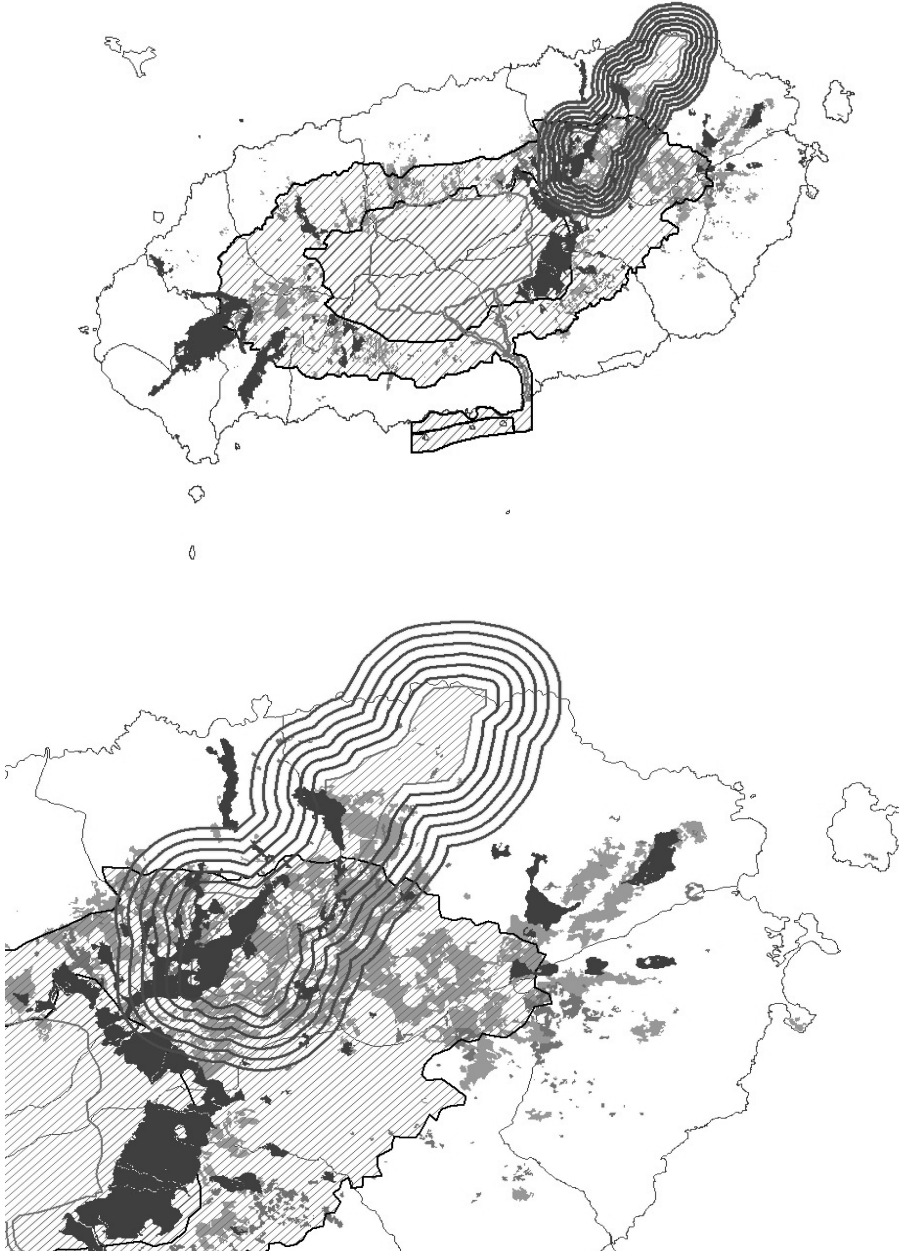
〈그림 11〉 세계자연유산지역,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지역분포와 꽃자왈, 경작지 분포현황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발담의 농업경관보전을 위한 지역선정은 기본적으로 조천-선흘 꽃자왈지역과 세계자연유산의 동굴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중산간의 생태적 가치 등도 반영될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ArcGIS를 이용하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세계자연유

산지역 동굴계를 중심으로 발담의 농업경관보전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모든 조건을 포괄적으로 수용할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적정범위로서는 세계 자연유산지역 동굴계의 경계를 중심으로 약 3km의 범위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그림12).

〈그림 12〉 세계자연유산지역의 동굴계 중심의 발담 농업경관보전지역 범위(위:전체 아래:상세부분) (주: 원의 간격은 500m임)



4. 제주돌담밭 경관의 활용방안

인간의 생활, 사회생활 등을 지탱하는 기반으로서의 공간과 그것에 부속하는 기능, 그 공간을 지상에 구체화하여 정착하게 하는 물체로서의 건조물(건축물)이 있는 것이다. 건조물이 내구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역사성과 기념비적인 성격이 강한 건조물일수록 구조체의 내구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체가 노쇄화하면 건조물은 사라져질 것 같으나 그렇지도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건조물에는 역사적인 각 시대의 사람들이 형성하여 온 양식, 사회적 요구에 의한 공간제작의 필연성과 형태, 그리고 기술이 함께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돌담밭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돌담밭의 형태적 외형적 미학과 함축적 의미를 알리고 전승하는 것은 역사 교육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돌담밭의 보전과 계승발전,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전과 아울러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적극적인 활용이라고 할수 있다. 제주돌담밭이 갖는 형태적 아름다움과 축조과정의 역사적,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접근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활용방안1) 기존 올레길과 연계 혹은 올레 코스의 일부를 조정하여 돌담밭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활용하는 방안

활용방안2)등록문화재로 지정관리 될 경우, 마을단위의 생활사박물관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

- 마을내 휴유공간, 즉 농촌의 창고, 빈집을 비롯한 많은 유허공간을 활용하여 마을생활사 박물관으로 조성하여 마을주민의 생활과 돌담밭 등을 소개하는 문화공간 조성하여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면서도 소득창출로 이어질도록 한다.

- 특히 마을생활사 박물관은 마을주민 개개인의 생애와 마을의 변화모습을 사진과 기록물 등 다양한 마을과 개인의 기록들을 전시함으로서 좁게는 개인생활사 박물관이자 넓게는 마을생활사 박물관이라 할수 있으며 농업과 관련된 생활, 돌담밭 관련 소개 등을 담아내는 지역문화공간이라고 할수 있다.
- 이러한 마을생활사 박물관 건립과정과 운영관리의 과정속에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공동체의식도 강화시킬 수 있어서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활용방안3) 생태탐방로로 활용하는 방안

- 올레길 개념과 유사한 방안으로 농업에 큰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의 장소를 선정하여 탐방하는 방안으로 기본적으로 몇 개의 마을을 그룹으로 묶어 돌담밭을 중심으로 지역을 탐방하게 하는 활용방안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돌담밭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배울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고문헌에 나타난 돌에 대한 인식

좌 혜 경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가. 소재와 인식

발담 : - 김구(金丘)가 발담 조성, 힘 있는 자들의 강제 소유에 대한 경계를 위함(노사신의 동국여지승람)
- 우마의 침입을 금함(김상헌의 남사록)
- 우마의 침입의 기능을 언급하면서 양전과 토지대장, 경계 측량의 필요성 언급(김성구의 남천록)
- 우마의 침입과 경계(이원조의 탐라지초본)
- 발담의 은혜(이은상의 탐라기행) 김구의 발담 조성으로 서민대 중들은 복을 받음

돌담 : - 방풍과 방축(담수계의 증보탐라지)
- 돌담 골목(임제의 남명소승)

석성 : - 왜구 방어용, ‘탐라 때의 만리장성’,
별방성을 예로 들고 있음(김상헌의 남사록)

жат성 : - 고득종의 건의, 목장 축조(조선왕조실록 세종 11년)

기타 : - 적석(돌무더기, 김정희의 제주풍토록)
- 난석(이증의 남사일록, 이원조의 탐라지 초본)
- 담장(이형상의 남환박물), 발둑과 집 곁에도 담장의 경계와 목장의 말을 막음
- 돌무더기(김성구의 남천록)

나. 돌 관련 고문헌 기사

<1> 고려조 고종(高宗) 시 제주판관 김구(金丘)가 발담을 처음 조성한 일(1234)

- 노사신(盧思愼) 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481)
- 이원진(李元鎭) 『탐라지(耽羅志)』 (1653)

【풍속】 돌을 모아서 담을 쌓았다[聚石築垣] : 동문감(東文鑑)에, “그 땅에 비가 많이 오나 땅이 건조하여 본래 논[水田]은 없고 오직 보리 · 콩 · 조가 생산된다. 그 밭이 예전에는 경계 독이 없어서 강하고 권력 있는 집에서 날마다 차츰 먹어 들어가므로 백성들이 괴롭게 여기었다. 김구(金丘)가 판관이 되었을 때에 백성의 고통되는 바를 물어서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드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여기었다.” 하였다.

(【風俗】聚石築垣東文鑑地多亂石乾燥素無水田唯麴麥豆粟生之厥田古無疆畔强暴之家日以蠶食百姓苦之金丘爲判官問民疾苦聚石築垣爲界民多便之)

- ※ 출전 : (1)노사신 외 『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 1982), 97쪽, 원문 31쪽. (2) 이원진(김상조 역) 『탐라지(耽羅志)』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7-8쪽, 원문 18-19쪽.

<참고> 『지포선생문집(止浦先生文集)』의 행장과 연표

- 문정공지포선생행장(文貞公止浦先生行狀) · 찬자(撰者)
- 송능상(宋能相)(1771)

“... 제주도(濟州島)에 본래 물논[水畝]이 없고 다만 밀 · 보리 · 콩 · 조만을 심었는데 소 · 말 · 노루 · 사슴 등 들짐승들이 짓밟아서 곡식이 여물 수가 없었고, 또 밭두렁의 경계가 없어서 지방의 세력 있는 토호(土豪)들이 조금씩 먹어 들어가 빼앗는 횡포가 심하여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어 낼 수가 없었다. 공이 돌맹이를 모아 담을 쌓고 그 경계를 확정하여 겸병(兼併)하지 못하도록 엄금하고 짐승들의 폐해도 막으니 백성들이 비로소 편안하여 지금까지 전하여 칭송하며 그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 문정공(文貞公) 김구(金丘) 선생 연보(年譜)

- 제주판관 재임기간(1234-1239)

· 고려 고종 21년 갑오(甲午, 1234) 공의 나이 24세에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나가서 5년간 재임하고 고종 26년 기해(己亥, 1239) 공의 나이 29세에 내직으로 들어와 한림원(翰林院)에 임명되다.

※ 출전 : 김구(金丘) 『지포선생문집(止浦先生文集)』 (성균관대학교, 1984), 167-168, 200쪽 각각 참조.

〈2〉 조선조 세종(世宗) 때 상호군(上護軍) 고득중(高得宗)이 한라산 기슭에 새로 목장 축조를 건의하여 윤허를 받고 갓성을 쌓은 일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世宗)조」 편

○ 세종 11년(1429) 8월 26일 조 기사

- 고득중의 한라산 목장 개축 상언(上言)

병조에서 아로기를,

“상호군(上護軍) 고득중(高得宗) 등이 상언(上言)하여 청하기를, ‘한라산(漢拏山)가의 4면이 약 4식(息)쯤 되는 면적의 땅에 목장(牧場)을 축조하여, 공사(公私)의 말을 가리지 말고 그 목장 안에 들여보내어 방목(放牧)하게 하고, 목장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백성 60여 호는 모두 목장 밖의 땅으로 옮기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땅을 떼어 주도록 하고, … (중략) 제주는 토성(土性)이 메말라 농부들은 밭 가운데에 반드시 팔장(八場)이란 것을 만들어서 소를 기르고, 쇠똥을 채취하여 종자를 뿌린 뒤에는 반드시 소들을 모아다가 밭을 밟게 하여야 싹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교(受敎) 안에 소를 죄다 육지로 내보내라고 하여 본주(本州)의 백성들이 경농(耕農)을 할 수 없습니다. … 소를 육지로 내보내라는 명령을 정지(停止)시켜 백성들의 소망을 위안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 〈상언(上言)〉을 본조(本曹)에 내리시어 처리하라고 명령하였던 바, 이제 자세히 계품합니다. 한라산 아래에 목장을 쌓아 말을 먹이는 것과, 하륙하는 초입에 관소를 설치하는 일은 상언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하고, 관승(館丞)은 따로

임명하지 말고 그 도의 역승(驛丞)으로 겸임하게 하며, 소를 육지로 내보내라는 명령은 선덕(宣德) 3년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3년에 한 번씩 관에서 그 값을 주고 자원(自願)에 따라 매매(賣買)하여 육지로 내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다만 한라산에 목장을 축조하는 것은 관리를 보내어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世宗十一年八月庚子 兵曹啓上護軍高得宗等上言請於漢拏山邊四面約四息之地築牧場不分公私馬入放場內居民六十餘戶悉移於場外之地從願折給(中略)本州土性瘠薄農夫於田內必造八場養牛聚糞播種後必聚牛踏田乃能立苗今受教內令牛隻盡出陸本州之民無以耕農(中略)請停牛隻出陸之令以慰民望命下本曹磨勘今詳漢拏山下麓築牧場牧馬及下陸初面設置館所請依所申館丞則勿令別差令其道驛丞兼任牛隻出陸則依宣德三年受教三年一次官給其直從自願貿易出陸從之唯漢拏山築場則可遣官審定)

<참고>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1427) 6월 2일조의 기사를 보면, 상호군(上護軍) 고득중(高得宗)이 판서 성달생(成達生)·소윤 조혜(趙惠)와 함께 강화부(江華府)로 가서 진강(鎭江)·기상(吉祥) 두 목장을 합쳐서 담을 쌓는 일이 말을 기르기에 편한 일인지를 살펴보는 임무를 맡아 그곳에 파견되었고,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올렸다. 이런 경험을 살려 고득중은 제주마 육성 목장의 효율적 운용 방법의 일환으로 한라산 기슭에 담을 둘러(жат성을 쌓아) 목장을 개축할 것을 구상했을 것이란 짐작이 들게 한다.

○ 세종 12년(1430) 2월 9일조

제주 한라산의 목장을 개축하였으니, 주위가 1백 65리(里)이었다. 민호(民戶) 3백 41호를 옮기었다.(世宗十二年二月庚辰 改築濟州漢拏山牧場周圍一百六十五里移民戶三百四十四)

<3> 조선조 중종(中宗) 제주 유배인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중 ‘적석(積石, 돌무더기)’ (1520)

“... 삼읍의 땅이 다 한라산 자락에 있어서 험하고 기름지지 않은 자갈

밭 일색이다. 평평한 땅은 반무(半畝)도 없고, 밭을 가는 자는 마치 물고기 뱃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하다. 땅이 질편하고 넓은 것 같은데도 멀리 조망해보기가 어려운 것은 땅이 낮았다 높았다 하며 울퉁불퉁한 까닭이다. 비록 언덕이 있다 해도 어지러이 뒤섞여 있어 그 형세를 분간하기가 어렵다. 마치 그물눈같이 얹혀있는가 하면, 혹은 어지럽게 무덤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비록 돌무더기[積石, *역주 : 현재의 방사탑과 같은 것으로 보임](이 가운데 가장 높은 게 모두 돌무더기이다.)가 많긴 하나 괴상하지도 고상하지도 않고, 깔끔히 정리되어 있지도 않아 모두가 다 완악(頑惡)해 보이고 거무튀튀한 게 보기에 가증스럽다. …”

(三邑之皆漢拏山之麓崎嶇磽确平土無半畝耕者如挑剔魚腹地似平曠而難遠望而凹隆故也雖有阜陵而雜亂難辨勢如綱目或如亂塚雖多積石就中最高者皆積石也而不怪不雅不整皆頑礪黑惡見之可憎)

※ 출전 : 金淨, 「濟州風土錄」 『冲庵先生集』(서울대규장각장본). 현행
 복, 『우도가』(도서출판 각, 2010), 246-247쪽.

〈4〉 조선조 선조 10년 알성문과 급제 백호(白湖)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 중 ‘돌담 골목’ (1578)

“이 섬 전체의 둘레는 5백리를 넘지 않는데 바닷물의 수심이 얇은 곳에 바위가 칼날처럼 쭈뼛쭈뼛 하다. 섬을 둘러서 온통 이렇게 때문에 물길을 잘 알아서 배를 부리는 자가 아니면 파선하기 십상이다. 섬의 토질은 모두 자갈밭이며, 한 뼘의 비옥한 땅도 찾아볼 수 없고 널따란 들이라곤 삼성혈(三姓穴)이 있는 곳뿐이다. 이곳 흙은 색깔이 붉어서 육지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장(射場)을 설치하여 무예를 시험하고 있다. 산에는 돌아다니는 짐승이 있고 들에는 기르는 짐승이 있어 천 마리 백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밭을 벌어먹으려면 반드시 돌담을 둘러쌓으며, 사람이 사는 집 또한 으레 돌을 쌓아 높다란 담장을 만들어서 이에 돌담으로 골목이 이루어진다.”

(一島周圍不過五百里海渚水淺處巖如劍戟環島皆然若非諳熟來往善於操舟者則必碎敗舟航焉遍島皆沙礫無一片饒土而廣壤之野三姓之穴也厥土赤壤無異陸

地故設射場試武藝焉山有獸野有畜千百其群僦僦而行故爲田畝者必繚以石垣焉
人家亦皆築石爲高墉以作門巷)

※ 출전 : 임제(林悌) 저(신호열 · 임형택 공역) 「남명소승(南溟小乘)」
『백호전집(白湖全集)(下)』(창작과 비평사, 1997), 818쪽 ·
원문 994쪽에서 인용.

<5> 제주안무어사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 중 ‘발담’ 과 ‘석성(石城)’ (1601)

(1) 제주발담

도근천(都近川)에 절이 있다고 들었기에 저물어 투숙하려고 가서 본즉
초옥(草屋) 몇 칸이 비바람도 가리지 못하고, 사는 중들은 모두 대처(帶妻)
하고 자식을 키우는데 누추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다. 개울에 이르니 다리
가 끊겨 시냇물을 따라 걸었다. 물은 겨우 한 자밖에 안되는데 색이 푸르
기가 바다와 같다.(바다와의 거리가 겨우 2리인데 제주 은순(銀脣)은 오직
이 개울에 많이 나고 주내의 산저천 및 정의 홍로천, 대정의 외이천에서도
대개 산출된다.)

애월에서 여기까지 30리에 가까운데 인가가 아주 적다. 왼쪽으로 바라본
즉 하늘과 바다가 접하고 오른 쪽에는 한라산 봉우리가 하늘을 떠받쳤는데
혹 10리, 혹 20리에 거치른 띠와 장운(瘴雲) 사이로 오직 두세 채의 어부의
집이 보일 뿐이다. 닭울음소리와 개짖는 소리가 나고 여덟, 아홉으로 마을
을 이룬 것도 없다. 길가의 곡식이 여물지 않고 풀이 덩수룩한 것이 황폐
한 밭과 같다. 이 지방의 사람에게 물으니 “금년에는 가을장마가 한 달
넘어 계속되어 지금도 개지 않아 이곳 농사는 차마 말도 못합니다. …” 라
고 한다. 밭머리 사면에 주먹돌을 모아 쌓아올려 담을 만들어서 목장의 말
이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게 막아 놓았다. 지세가 평탄치 않고 구릉들이 서
로 마주보고 있는데 석천가취(石泉佳趣)란 전혀 없다. 눈길 닿는 곳은 모두
홍악한 돌 들 뿐이다.

(聞都近川有寺因暮欲投宿至則草屋數間不庇風雨居僧輩皆帶妻畜子陋不可入
到川上橋拆由溪而涉水纔一尺色碧如海距海堇二里本州銀脣惟產於此川者多州

內山底川及旌義洪爐川大靜外耳川亦略產自涯月至此幾三十里人烟絕少左望則天海相接右瞻則拏岳撐空或十里或二十里荒茅瘴雲之間惟見兩三漁戶未有鷄鳴犬吠八九成村者道邊禾穀不實蕪穢如荒田問諸土人今年秋霖彌月至今不開此處農事不忍說云云田頭四面聚拳石壘築爲垣以禦場馬攔入之患地勢不平坦丘陵相望絕無石泉佳趣寓目皆頑石)

(2) 밭갈기

내가 밭가는 자를 보니 그 농기(農器)가 협소하여 마치 아이 장난감 같았다. 그래서 물으니 말하기를, “땅 속에 몇 치만 들어가면 모두 암석이어서 이로써 깊이 갈지 못한다.” 고 하였다.

(余見耕田者農器甚狹小如兒戲之具問之則曰入土數寸皆巖石以此不得深耕云)

(3)적석(積石)의 사연과 왜구 방어용 석성(石城)

내가 조천관(朝天館)으로 가면서 사라봉(紗羅峯) 아래의 작은 고개에 올랐다. 곧 뻘뻘하고 거칠은 모습을 바라보니 마치 수없이 많은 집터의 담벽 돌이 가로, 세로로 쌓여 있는 것 같았다. 당초 사람이 없었을 때, 섬의 원야(原野)는 모두 이 적석(積石)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 후 점점 밭을 갈고 개간하는 땅이 되자 밭두둑과 밭이랑을 넓히게 되었으나 멀리까지 개척하지는 못하고 다만 밭머리에다 그 돌들을 쌓아놓게 되었던 것이다. …(중략)

점심을 먹은 다음에 김녕(金寧) 폐현(廢縣)(고려 때에 현을 설치하였고, 조선시대로 들어와 역시 방호소를 설치하였다. 지금은 모두 폐지하였는데 주현에서 동쪽으로 65리이다.)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도중에 한 마을이 길에 가까이 있고 마을 마주보는 곳에 폐사(廢寺)가 있는데 단지 초옥(草屋) 몇 칸일 뿐이다. 이는 원(元)나라 때 세운 강림사(江臨寺)인데 절 앞에는 훌륭한 표석(表石)이 있다. 바로 그 아래를 바위가 감아 돌아 자연적으로 지당(池塘)의 모습을 이뤘는데, 바닷물이 지당의 입구로 드나든다. 이어서 돌로 방축을 쌓아 지당을 갈라서 길을 내었다.

바닷가 일대에는 돌로 성을 쌓았는데 연달아 이어지며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 섬을 돌아가며 곳곳이 다 그렇다. 이것은 탐라(耽羅) 때에 쌓은 만리

장성(萬里長城)이라고들 한다 했다.

초저녁에 달빛을 타고 별방방호소(別防防護所)(김녕에서 30리의 거리이다)에 이르렀다. …(중략)

지지(地誌)를 보면 “별방성(別防城)은 주읍(州邑)의 동쪽 75리에 있는데, 석성(石城)의 둘레는 2천 3백 90척이요, 높이는 7척이다. 동남북에 세 개의 문이 있고 우물이 하나 있는데 물맛은 짜다. 지명(地名)은 오래 전에 하도의탄리(下道衣灘里)라고 불러 졌었다. 정덕(正德) 경오(庚午, 1510)년에 제주 목사 장림(張琳)이, 이 땅은 우도(牛島)의 왜선(倭船)이 정박하는 곳과 가까우므로 김녕방호소(金寧防護所)를 철폐하여 여기에 옮겨 설치하였다.” 라고 했다.

(○余往朝天館時登紗羅峯下小峴則望之寵巖如萬家遺址墻壁縱橫當初無人之時島上原野皆是積石亂頽厥後漸爲耕墾之地因恢拓壟畝而不能遠關只就於田頭纍築其石也(中略)中火後到金寧廢縣高麗時置縣入我朝亦設防護所今並廢在州東六十五里暫憩中路有一村臨道對村有廢寺只草屋數間而已乃元時所建江臨寺寺前有華表其下廻巖自成塘形海潮自塘口相通仍築石埭截塘開道沿海一帶又築城連亘不絕環島處處皆然乃耽羅時所築萬里長城云初昏乘月到別防防護所距金寧三十里(中略)按地誌別防城在州東七十五里石城周二千三百九十尺高七尺有東南北三門中有一井味鹹地名古稱下道衣灘里正德庚午牧使張琳以此地與牛島倭船來泊處相近撤金寧防護所移設于此)

※ 출전 :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 『제주사자료총서(濟州史資料叢書)(I)』 (제주도, 1998), 271-272쪽, 288쪽과 393-395쪽 각각 참조. 번역문 참조 : 김희동(金禧東) 역 『남사록(南槎錄)』 (영가문화사, 1992).

<6> 정의현감 김성구(金聲久)의 『남천록(南遷錄)』 중 ‘발답’ 과 ‘양전(量田)’ (1679)

(1) 발답

숙종 5년(己未 1679년) 7월 20일, 제주를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조천관에서부터 서쪽으로 25리에 달하는 거리라고 하였다. 어제 지나온 해로(海路)

를 바라보니 눈과 같은 파도가 하늘에 흩어지며 사람으로 하여금 심골(心骨)을 오싹하게 한다. 돌길은 험준하여 하나도 평탄한 곳이 없다.

전야(田野)를 바라보니 만가(萬家)의 유지(遺趾)처럼 담벽이 종횡으로 있었다. 대개 당초 한 사람도 없을 때는 모두 어지럽게 돌이 쌓여서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는데, 후에 점차 경간(耕墾)하는 땅으로 만들면서 밭두둑과 이랑으로 개척하여 멀리까지 전답을 만들지 못하고 단지 밭머리에다 돌을 모아 쌓은 것이 곧 담장을 이루었다. 무덤이 밭 속에 많이 있고 또한 사명으로 돌을 쌓았는데, 소와 말이 들어가서 밟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역주: 이 단락의 표현은 김상헌의 『남사록』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감영에 도착하여 목사 최관(崔寬)과 인사를 나누고 한참 있다가 판관姜성좌(姜聖佐)를 뵈고 나가서 여염집에서 잤다.

(肅宗五年己未七月二十日 發向濟州自館西距二十五里云回望昨日所歷海路則雪浪排空令人心骨俱寒石路嵒嵒無一平坦處望見田野如萬家遺址牆壁縱橫盖當初無人之時皆是積石亂堆後漸爲耕墾之地因恢拓壟畝而不能遠關只就於田頭累築仍成垣墻墳塚多在田中而亦皆四面石築所以禦牛馬闌入蹴踏之患也到營牧使崔寬相叙良久仍見判官姜聖佐出宿于閭家)

(2) 양전(量田)을 위한 경계측량(境界測量)의 필요성

현재 민전(民田)은 90여 결(結)이다. 본도의 토지는 심히 척박하므로 2, 3년을 연작(連作)하면 곡식이 여물지 않는 까닭에, 또 새 밭을 개간하여 몇 년 지력(地力)을 쉬게 한 후에 이를 다시 경작하여야 한다. 여염집 가까운 땅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경작하여 먹을 만한 밭은 거의 없다. 그 나머지는 황모(黃茅)가 들에 가득할 뿐이다. 밭이랑이 많지 않으니 의당 그 전결(田結)도 대략 적다. 그러나 지금 민호(民戶)는 곧 천여 호가 되니, 천여 호가 경작하는 땅이 반드시 이와 같이 적지는 않다.

자고로 양전안(量田案)이 없고, 또 어린책(魚鱗冊, 곧 토지대장)이 없으니, 가을이 들어 실제로 들에 나가 작황(作況)을 조사하게 될 때는 관원과 소기를 내보내어 그의 보는 바를 따라 이를 기록하는데, 육지 화전제(火田制)와 같다. 그간에 소루(疏漏)하고 난잡한 폐단은 가히 상상할 만하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다. 이미 동 · 서로 경계 표시도 없고, 자호(字號) 결수

(結數) 그리고 밭 이름[員名]도 명백하지 않는 까닭에 소송이 심히 번거롭다. 관리가 된 자도 또한 주객(主客)을 판별할 길이 없어서 혹은 경작기간의 오랜 것을 따르기도 하고 혹은 나이 든 사람에게 묻기도 하여 이를 판결하니, 그 중에 또한 어떤 이치는 옳은데도 억울하게 소송에는 굴복한 자가 없겠는가. 이 섬은 바다 밖에 치우쳐 있으므로 조정이 이를 대하는 바가 절목(節目)이 간소하므로 인순(因循)하여 이에 이르렀다. 지금 민물(民物)은 점차 번성하고 인심은 교활하니, 반드시 한번 측량하여 그 경계를 바르게 한 연후에라야 이러한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時起民田九十餘結本島土地甚瘠連耕二三年則穀穗無實故又墾新田休力數年後更起之除閭閻近地外年年耕食之田結無而僅有其餘則黃茅滿野墾畝不多宜其田結之略小然即今民戶乃是千餘戶則千餘戶所耕之地必不至於如此之小而自古無量田案又無魚鱗冊秋來災實踏驗之時則出送委官書員從其所見而記之若陸邑火田之例其間疏漏亂雜之弊可想非但此地既無東西犯標字號結數而員名亦不明白故爭訟甚煩爲官者亦無辨別主客之路或從其執耕之久或問于古老而決之其中亦豈無理直而負屈者乎此島僻處海外朝家之所以待之者簡節疎目因循至此而今則民物漸蕃人心狹詐必須一番量地正其境界然後可無此患矣)

※ 출전 : 김성구(金聲久) 저(김봉옥 역) 「남천록(南遷錄)」 『속탐라록(續耽羅錄)』 (제주문화방송, 1994), 208-209쪽, 212쪽과 원문 263쪽, 266쪽 각각 참조.

〈7〉 제주안핵겸순무어사(濟州按覈兼巡撫御史) 이증(李增)의 『남사일록(南槎日錄)』 중 ‘돌무더기’와 ‘밭담’ (1680)

(1) 돌무더기[亂石]

화북(禾北)에서 주성(州城)으로 들어가며 돌길을 지나는데 우뚝우뚝 검은 돌들이 사나운 짐승모양같이 갈마들며 서 있었다. 그러나 소 피를 삶아놓은 것같이 단단하고 온전하지가 않았다. 해변은 더욱 심하여 놀랄만한 파도가 높이 솟은 난석(亂石)에 격렬하게 쏘아대면 몇 장(丈)이나 되게 높이 일어났다. 바닷길을 지나며 돌아다보니 커다란 물결이 집채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모르는 사이에 모골(毛骨)이 송연하게 했다. 북쪽을 바라보니 바

다와 하늘이 서로 잇닿았고, 남쪽을 쳐다보니 한라산이 구름에 꽂혀있고, 거친 띠풀과 모진 돌무더기 사이에 오직 한두 개 민호(民戶)가 보일 뿐이었다. 돌밭에는 독이 연결되지 않았고 밭 끝 사방에 주먹만 한 돌들로 둘러쌓아 소와 말이 함부로 들어올까 봐 막고 있다. 밭 끝에 분묘(墳墓)를 만 들고 역시 돌을 쌓아 담장을 하였다.

(自禾北入州城所徑石路巖崿黑石錯立如惡獸形而不得堅完如烹牛血海邊爲尤甚驚濤激射於嵯峨亂石高起數丈四望所歷海程大浪如屋令人不覺毛骨竦然北望則海天相接南瞻則擎岳插雲荒茅惡石之間惟見一二民戶石田未有連陌田頭四面聚拳石周築以禦牛馬闌入之患田頭起墳亦石築爲垣)

(2) 밭담

『동문감(東文鑑)』에 이르기를, “땅에는 난석(亂石)이 많고, 논밭이 없 으며, 밭에는 경계가 없어 강폭(强暴)한 사람은 날마다 잠식해 들어간다. 김구(金丘)가 판관(判官)이 되어 백성의 괴로움을 물어보고 돌을 모아 담을 쌓게 하니 백성이 모두 편안해 하였다.” 고 했다.

내가 대정(大靜) 지경을 보니 논밭이 많고 돌을 모아 담장을 하였는데, 다만 한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소·말이 곡식을 해치는 것을 방지 하고 있었다. 다만 전답에만 담장을 쌓은 게 아니라 인가는 모두 돌로 담 장을 쌓아 걸 나무울타리는 없었다. 아마도 돌을 모으는 게 장작을 얻는 것보다도 쉽기 때문일 것이다.

(東文鑑地多亂石無水田田無疆界强暴者日以蠶食金丘爲判官問民疾苦聚石築垣民皆便之余見大靜界多水田聚石爲垣非但爲限界專爲防牛馬害穀也非但田畝築垣人家皆以石築牆絕無藩籬盖聚石易於取薪故也)

※ 출전 : 이증(李增)저(김익수 역) 『남사일록(南槎日錄)』 (제주문화원, 2001), 41쪽, 49-50쪽, 원문 46-47쪽, 60쪽에서 각각 인용.

〈8〉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의 『남환박물(南宦博物)』 중 ‘돌담 을 타리’ (1701)

○ 풍속(風俗)에 대한 기록 - 돌을 모아 울타리를 쌓음[聚石築垣]

지지(地誌)에 옛날 밭둑이 없었으므로 강포(强暴)한 자가 병탄(并呑)하였다. 김구(金丘)가 판관이 되었을 때에 영(令)으로 각각 울타리를 만들도록 하니 이를 편하게 여겼다. 지금의 밭둑과 집 곁에도 모두 각각 담장이 있는데, 다만 경계를 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목장의 말을 막는 것이라고 하였다.

(誌俗 聚石築垣地誌古無田畔强暴并呑金丘爲判官時令各爲垣民皆便之今之田畔家傍皆各有墻非特定界亦以禦場馬云)

※출전 : 이형상(李衡祥)(김봉옥 역) 「남환박물(南宦博物)」 『속탐라록(續耽羅錄)』 (제주문화방송, 1994), 333쪽, 원문 457쪽.

<9> 제주목사 이원조(李源祚)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난석(亂石)’ (1843)

○ 【토속(土俗)】 - ‘땅에 난석(亂石)이 많음[地多亂石]’

산과 평지를 논할 것 없이 돌이 많고 흙은 적다.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모두 땅 속으로 스며들어 흘러서 말라버린다. 밭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분묘를 만드는 자는 반드시 돌을 모아 담을 쌓아서 우마의 출입을 막았다. 『동문감(東文鑑)』에 “백성들의 농토는 예전에 경계가 없어서 강하고 사나운 집안에서 날마다 잠식해 들어가므로 백성들이 이를 괴롭게 여겼다. 김구(金丘)가 판관이 되었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들도록 하였다.” 라고 하였다.

(土俗 地多亂石無論山衍多石小土故溪澗皆伏流乾澗刊田及作舍起墳者必聚石爲垣以防牛馬東文鑑民田古無疆畔强暴之家日以蠶食百姓苦之金丘爲判官教民築墻爲界云)

※ 출전 : 이원조(李源祚)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影印本)(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40-41쪽. 번역문 참조 : 고창석 외 7인 공역 『탐라지초본(상)』 (제주교육박물관, 2007), 53쪽.

<10> 이은상(李殷相)의 『탐라기행(耽羅紀行)』 중 ‘밭담의 유래’ (1937)

○ 밭담[田畔石垣]의 유래 - 8백년 전 김구(金丘)의 은혜

도근천변(都近川邊) 저 어느 숲속에 서천암(逝川庵)이 있었던가. 고려(高麗)의 시 쓰는 승려 혜일(慧日)이 돌아가고 없는 오늘이로되, 암자만 있다 하면 급한 길을 그곳으로 돌려서라도 오늘밤 달뜨기를 기다려 바위를 쓸고 차를 마시며 놓고나 가련마는.

涼秋佳月夕 서늘한 가을 밤 아름다운 달 뜬 저녁에
掃石開茗筵 바윗돌 쓸고 앉아 차 한 잔 마셔볼거나.

이러한 혜일(慧日)의 서천암(逝川庵) 장시(長詩)중의 일구(一句)만을 입안으로 굴리며 범연(凡然)한 듯이 도근천(都近川)을 지나가는 것이다.

차(車)는 연방 바다를 끼고 달린다. 바른편 눈은 창랑(滄浪)을 헤엄쳐 나가기에 숨이 찬데, 그대로 왼편 눈은 마을과 밭과 지나가는 사람과 말과 우뚝우뚝한 산봉우리들을 모조리 살피기도 바쁘다.

우리가 차 안에서 제주도(濟州島)의 가장 독특한 풍경으로 보게 된 것은 ‘돌이 많다’는 것이다. 돌이 많아도 이만저만한 정도가 아니다.

탐라(耽羅) 온 섬이 조약돌무더기로 되었다고 하여도 누가 능히 부인하지 못할 만하다. 불가(佛家)에서 수(數)를 헤아리는 말에 ‘항하사(恒河沙)’라는 것이 있거니와 이곳의 조약돌 수도 거의 ‘항하사’에 뒤지지 않음직하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돌에 묻혀서 사람은 어디서 살고 어떻게 다니느냐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조약돌은 모두 담장[牆垣]이 되어 있다. 집도 돌로 쌓아 짓고, 또 돌로써 담을 두르고, 큰 밭이나 작은 밭이나 밭 경계마다 4·5척 높이의 돌담을 둘렀으며, 길옆[路傍]의 무덤이나 조그마한 우물 에나 어디든지 돌담이 둘러있다. 그리고도 길바닥마저 순탄하지 아니하다.

‘돌담의 제주도(濟州島)’라고까지 부를 수 있으려니와, 예같이 어디나 돌담을 쌓게 된 유래에 관하여는 『동문감(東文鑑)』에 이런 기록이 있다.

“제주도(濟州島)는 난석(亂石)이 많고 건조하여 본시부터 논이란 없고, 다만 밀·보리·콩·조 따위만 나는데, 그나마 옛날엔 내밭 네밭의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강포(強暴)한 집에서 나날이 남의 것을 잠식(蠶食)하므로 모든 힘없는 백성들이 심히 괴로이 여기더니, 김구(金丘)란 이가 판관(判官)이 되어 온 뒤에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듣고 드디어 돌을 모아 제 밭마다 담을 두르게 하니 경계가 분명해지고 그로부터 백성들이 편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 밭마다 빠짐없이 돌담을 쌓게 된 것은 김구(金丘)가 판관으로 왔던 때부터 시작된 일임을 알 것이니, 김구는 고려 의종(毅宗) 때의 사람이라 지금으로부터 약 8백 년 전이다. 이 김구에 대하여는 그가 판관으로 왔던 이 때 옛날의 관록(官錄)에도 그의 소개가 한 줄[一行]에 차지 못하고, 오늘날의 도민들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가 많지 않은 듯 함은 무엇보다 민망스러운 일이다.

나는 김구(金丘)를 일러 제주도(濟州島)의 은인(恩人)이라고 칭송하고자 한다. 평면으로 널려 있는 돌을 입체로 올려쌓게 한 일이 심상한 의견같이 생각될지도 모르나, 그 방법을 처음 내고 그 방법으로 인하여 민생에게 복(福)과 편리(便利)를 준 것인데 그가 곧 은인이 아니고 무엇이랴. 더구나 밭을 둘러 높은 담을 쌓은 것이 그 당시에는 서로 경계를 분명히 한 점으로 세민대중(細民大衆)에게 복이 되었으려니와 오늘와서는 그밖에 다른 효과와 은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으니, 첫째는 돌을 그같이 처치하였으므로 통로가 편케 되고, 둘째는 그들의 밭 언덕마다 쌓았으므로 강렬한 해풍(海風)을 막아 농해(農害)를 면케 되고, 셋째는 방목(放牧)의 우마(牛馬)를 막는 점이다. 어찌 그 은혜가 적은 것이겠느냐.

이곳에 있어서는 돌이 귀중한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두통거리라고도 할 만하겠지만, 그것이 또 다시 여기 이같이 효과 있게 은혜로 이 쓰이게 됨을 볼 때 나는 스스로를 점두(點頭)하는 바 있다.

성서(聖書)의 한 구절,

“장인(匠人)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긴요한 돌이 되느니라.” 고.

(* 원문이 본래 국한문혼용체로 되어 있어 알기 쉬운 현대어로 바꿨음.)

* 출전 : 이은상(李殷相), 『탐라기행(耽羅紀行)』 (조선일보사, 1937), 60-63쪽.

〈11〉 담수계(淡水契) 편의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중 ‘돌담[石垣]’ (1954)

○ 【풍속(風俗)】 - 돌담[石垣]

탐라(耽羅)는 <담나라>의 이두음(吏讀音) 같이 생각하리만큼 제주는 어디를 가든지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가옥 · 전담 · 무덤 등 둘레의 경계선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본도 삼다(三多)의 하나인 돌을 처치하는 방법도 되며, 겸하여 방풍방축(防風防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이른바 일거양득(一舉兩得)이라 생각된다.

『동문감(東文鑑)』에 이르기를, “땅에 어지러이 널려진 돌이 많고, 본래 논[水田]은 없으며, 진귀한 과일과 물건[簞亞]들이 그 땅에서 생산되고 예전에는 밭 경계가 없어서 권세가들이 날마다 잠식해가니 백성들의 고통이 심했다.

(地多亂石 素無水田 惟珍果簞亞 產之厥土 古無疆畔 强豪之家 日以蠶食民多苦之). 김구(金丘) 판관 때에 백성의 괴로움을 덜게 하려고 돌담을 쌓아 경계를 짓도록 하니 백성의 편리함이 많았다.” 고 하였다.(*원문은 본래 국한문혼용체임)

*출전 : 담수계(淡水契) 편(編) 『역주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제주문화원, 2005), 554쪽.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